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

(2003~2023)

Analysis of young people employment
trends in SMEs

노민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발행일 2024년 07월 31일

발행인 이 동 주

발행처 **KOSI 중소기업연구원**

(0707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전화 : 02-707-9800, 팩스 : 02-707-9892

홈페이지 : <http://www.kosi.re.kr>

출판등록 제2016-000030호

I S B N 978-89-6179-510-4 (95300)

편집·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02-2683-0955

<비매품>

자율연구 24-01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Analysis of young people employment trends in SMEs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노민선 연구위원



발 간 사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50.8%('03)에서 33.4%('23)로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20.4%('23)에서 14.4%('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소기업의 4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66.2%('17)에서 72.0%('22)로 증가한 반면, 청년 근로자의 유입은 원활하지 않아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법률과 국가 승인통계의 분류 기준을 검토한 후 연구에서 적용할 중소기업과 청년을 정의하고,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령별 고용의 20년간('03~'23) 변화 추이를 종사자 규모와 종사자 지위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를 성, 교육정도, 업종 관점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연령별 인구 비중과 취업자 비중 간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중소기업과 청년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를 수행한 노민선 박사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준 전문가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24년 7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이 동 주

[자율연구 24-01]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요 약

1 분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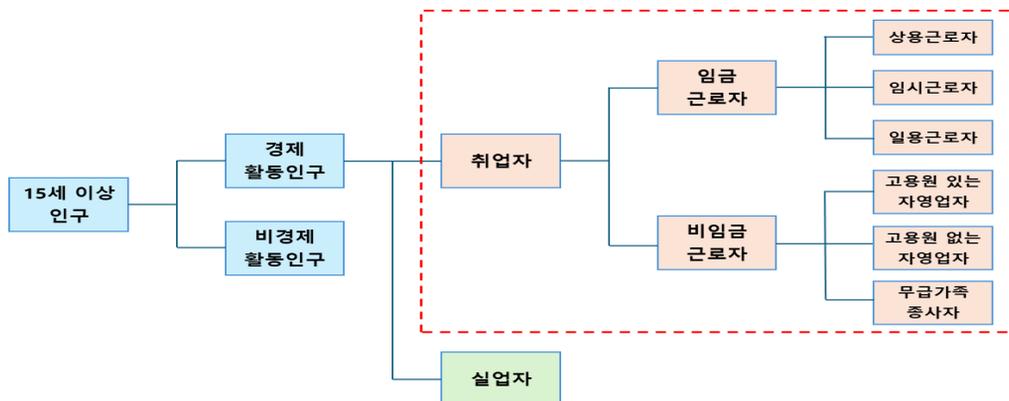
□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사업체’, 청년은 ‘39세 이하’로 정의

- 중소기업은 관련 법령, 국가통계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사업체’로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업종의 중소기업 구분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으로 규정(∼’14.12.31, ’15년부터 매출액으로 변경)
 - 고용노동 분야 주요 국가승인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의 경우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을 구분하여 발표
- 청년은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5세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 (29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39세 이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 고용노동 관련 대표적 국가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취업자 현황을 분석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
-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하며, 주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시휴직자를 포함

[그림] 경제활동인구 구조



*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연령별 고용 변화 추이

-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9,256천 명('23)으로 전체 취업자의 32.6%를 차지
 - 29세 이하는 3,899천 명으로 13.7%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 비중(18.5%) 대비 4.8%p 낮은 수준
 - 30~39세는 5,357천 명으로 18.9%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 비중(14.9%) 대비 4.0%p 높은 수준

-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는 7,817천 명('23)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30.9%를 차지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30.9%)은 300인 이상 대기업(46.6%) 대비 15.7%p 낮은 수준
 - 1~4인 사업체의 청년 취업자 비중(21.3%)은 5~299인 사업체(37.1%) 대비 15.8%p 낮게 나타남
 - 3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중(33.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30.9%)은 2.5%p 낮고, 대기업(46.6%)은 13.2%p 높은 수준
 - 중소기업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47.7%('03)에서 30.9%('23)로 16.8%p 줄었으며, 대기업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62.8%('03)에서 46.6%('23)로 16.2%p 감소함

- 청년 임금근로자는 8,252천 명('23)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7.8%를 차지
 -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임금근로자(37.8%)가 비임금근로자(15.2%) 대비 22.6%p 높은 수준
 - 3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중(33.4%)과 비교했을 때, 임금근로자(37.8%)는 4.4%p 높고, 비임금근로자(15.2%)는 10.8%p 낮은 수준
 - 임금근로자의 청년 비중은 59.6%('03)에서 37.8%('23)로 21.8%p 줄었으며, 비임금근로자의 청년 비중은 29.2%('03)에서 15.2%('23)로 14.0%p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29세 이하 비중은 15.2%('23)로 임시근로자(23.7%) 대비 8.5%p 낮은 수준
 - 29세 이하 인구 비중(18.5%)과 비교했을 때, 상용근로자(15.2%)는 3.3%p 낮고, 임시근로자(23.7%)는 5.2%p 높은 수준

3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

- 중소기업의 여성 청년 취업자는 3,621천 명('23)으로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의 31.8%를 차지
 -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31.8%)은 중소기업 남성(30.1%) 대비 1.7%p 높지만, 대기업 여성(57.8%) 대비 26.0%p 낮은 수준
 -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15.7%)은 중소기업 남성(11.7%) 대비 4.0%p 높지만, 30~39세 비중(16.1%)은 중소기업 남성(18.4%) 대비 2.3%p 낮은 수준
 -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48.6%('03)에서 31.8%('23)로 16.8%p 줄었으며, 중소기업 남성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47.1%('03)에서 30.1%('23)로 17.0%p 감소함

- 중소기업의 대졸 청년 취업자는 3,091천 명('23)으로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의 42.0%를 차지
 -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42.0%)은 대기업 대졸(54.9%) 대비 12.9%p 낮은 수준
 - 중소기업 대학원졸 청년 취업자는 246천 명('23)으로 중소기업 대학원졸 취업자의 24.8%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대졸(42.0%) 대비 17.2%p, 대기업 대학원졸(31.9%) 대비 7.1%p 낮은 수준
 -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64.7%('03)에서 42.0%('23)로 22.7%p 줄었으며, 중소기업 대학원졸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49.6%('03)에서 24.8%('23)로 24.8%p 감소함

- 중소기업제조업의 청년 취업자는 1,187천 명('23)으로 중소기업제조업 취업자의 33.5%를 차지
 - 중소기업제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33.5%)은 중소기업서비스업(34.0%) 대비 0.5%p, 대기업 제조업(46.2%) 대비 12.7%p 낮은 수준
 - 중소기업제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11.7%)은 중소기업서비스업(15.7%) 대비 4.0%p 낮지만, 30~39세 비중(21.8%)은 중소기업서비스업(18.3%) 대비 3.5%p 높은 수준
 - 중소기업제조업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52.1%('03)에서 33.5%('23)로 18.6%p 감소함
 - 대기업 제조업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64.3%('03)에서 46.2%('23)로 18.1%p, 중소기업서비스업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52.9%('03)에서 34.0%('23)로 18.9%p 줄었음

4 제도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수준 현실화

- 청년 재직자의 급여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 확대
 - 3년 평균 초과임금증가분에 대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율(20%) 상향 조정
 - 청년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율(15%) 현실화
-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출 시 지원 강화
 - 대·중견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10%) 상향 조정
 - 대·중견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 강화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거, 의료,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적립한도, 업종, 연소득 관련 제한요건 완화
 -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welfare.korcham.net) 활성화

□ 청년 구직자와 관철은 중소기업 간의 연계 강화

- 중소기업 청년 인력지원 플랫폼 간의 연계기능 강화
 -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간의 정보 연계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 청년인력의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인증·지정·선정 제도의 활용도 제고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청년친화강소기업 제도의 통합 운영 및 인센티브 확대

□ 청년 기술창업 촉진

- 혁신 역량을 보유한 청년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사업 확대
 - 멘토링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 활성화
- 청년 창업자의 사업전환 및 재창업, 재취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사업전환 및 재창업 희망자) 밀착 컨설팅과 재창업 사업화 지원 확대
 - (재취업 희망자)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청년 여성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 완화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법),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의 기금을 활용한 사업 신설
- 정부 인증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여가친화인증제(문화체육관광부), 가족친화기업인증(여성가족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증 취득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는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참여 형태로 추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컨설팅 강화
 -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인식개선 프로그램 추진
 -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과의 연계 확대

□ 교육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강화 및 후학습 지원 확대
 - 진로체험 프로그램부터 전공심화 및 맞춤형 현장 실무교육까지 학년별 진로지도 강화
 - 고교-중소기업-대학 연계를 통해 성장경로별 맞춤형 후학습 트랙과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우수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
 - 혁신형 중소기업-대학-박사과정생 간의 3자 협약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해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 및 취업과 연계

□ 중소기업의 작업 및 근로환경 개선

- 교통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출퇴근 비용 지원 강화
 -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 지원, 임차차량 미이용자 직접 지원, 거주지 이전비용 지원
- 작업환경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을 확대하고, 작업공간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연계
 - 작업환경 개선에 성공한 중소기업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미디어에 확산·보급
- 중소기업의 산업 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 노력 강화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분석개요	
1. 용어의 정의	6
2. 분석자료 및 방법	9
제3장 연령별 고용 변화 추이	
1. 전체	12
2. 종사자 규모별	16
3. 종사자 지위별	28
4. 시사점	43
제4장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	
1. 전체	46
2. 성별	52
3. 교육 정도별	57
4. 업종별	66
5. 시사점	73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76
2. 정책 개선방안	78
참고문헌	82

표 목 차

〈표 2-1〉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종사자 분류 기준	6
〈표 2-2〉	법령 상 청년 연령 구분 기준	8
〈표 3-1〉	연령별 취업자 현황(규모별, 2023)	12
〈표 3-2〉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비중(규모별, 2023)	13
〈표 3-3〉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13
〈표 3-4〉	연령별 취업자 현황(지위별, 2023)	14
〈표 3-5〉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비중(지위별, 2023)	15
〈표 3-6〉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지위별, 2023)	15
〈표 3-7〉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전체, 2003~2023)	17
〈표 3-8〉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 추이(2003~2023)	18
〈표 3-9〉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전체, 2003~2023)	19
〈표 3-10〉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중소기업, 2003~2023)	20
〈표 3-11〉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2003~2023)	21
〈표 3-12〉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1~4인, 2003~2023)	22
〈표 3-13〉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1~4인, 2003~2023)	23
〈표 3-14〉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5~299인, 2003~2023)	24
〈표 3-15〉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5~299인, 2003~2023)	25
〈표 3-16〉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대기업, 2003~2023)	26
〈표 3-17〉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대기업, 2003~2023)	27
〈표 3-18〉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임금근로자, 2003~2023)	29
〈표 3-19〉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임금근로자, 2003~2023)	30
〈표 3-20〉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상용근로자, 2003~2023)	31
〈표 3-21〉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상용근로자, 2003~2023)	32
〈표 3-22〉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임시근로자, 2003~2023)	33
〈표 3-23〉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임시근로자, 2003~2023)	34
〈표 3-24〉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일용근로자, 2003~2023)	35
〈표 3-25〉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일용근로자, 2003~2023)	36
〈표 3-26〉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비임금근로자, 2003~2023)	37
〈표 3-27〉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비임금근로자, 2003~2023)	38

〈표 3-28〉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자영업자, 2003~2023)	39
〈표 3-29〉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자영업자, 2003~2023)	40
〈표 3-30〉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무급가족종사자, 2003~2023)	41
〈표 3-31〉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무급가족종사자, 2003~2023)	42
〈표 4-1〉	성별 청년 취업자 현황(2023)	46
〈표 4-2〉	남성의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47
〈표 4-3〉	여성의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47
〈표 4-4〉	교육 정도별 청년 취업자 현황(2023)	48
〈표 4-5〉	청년 인구 비중 대비 고졸 이하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49
〈표 4-6〉	청년 인구 비중 대비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49
〈표 4-7〉	업종별 청년 취업자 현황(2023)	50
〈표 4-8〉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51
〈표 4-9〉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51
〈표 4-10〉	남성의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중소기업, 2003~2023)	53
〈표 4-11〉	남성의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2003~2023)	54
〈표 4-12〉	여성의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중소기업, 2003~2023)	55
〈표 4-13〉	여성의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2003~2023)	56
〈표 4-14〉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고졸 이하, 2003~2023)	58
〈표 4-15〉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차이(고졸 이하, 2003~2023)	59
〈표 4-16〉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전문대졸, 2003~2023)	60
〈표 4-17〉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차이(전문대졸, 2003~2023)	61
〈표 4-18〉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대졸, 2003~2023)	62
〈표 4-19〉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차이(대졸, 2003~2023)	63
〈표 4-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대학원졸, 2003~2023)	64
〈표 4-21〉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차이(대학원졸, 2003~2023)	65
〈표 4-22〉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제조업, 2003~2023)	67
〈표 4-23〉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제조업, 2003~2023)	68
〈표 4-24〉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서비스업, 2003~2023)	69
〈표 4-25〉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서비스업, 2003~2023)	70
〈표 4-26〉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기타 업종, 2003~2023)	71
〈표 4-27〉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기타 업종, 2003~2023)	72

----- 그림 목 차

[그림 2-1]	경제활동인구 구조	10
[그림 3-1]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규모별, 2003~2023)	16
[그림 3-2]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지위별, 2003~2023)	28
[그림 4-1]	성별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2003~2023)	52
[그림 4-2]	교육 정도별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2003~2023)	57
[그림 4-3]	업종별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2003~2023)	66

[자율연구 24-01]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39세 이하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0년간 50.8%(’03)에서 33.4%(’23)로 17.4%p 줄었으며(통계청, 각연도a), 향후 19~34세 청년 인구 비중은 20.4%(’23)에서 14.4%(’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3a).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중 40세 이상 비중은 2023년 12월 말 기준 47.3%로 대기업(41.7%) 대비 5.6%p 높은 수준이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4),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4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66.2%(’17)에서 72.0%(’22)로 최근 5년간 5.8%p 증가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각연도).

중소기업은 높은 인력 미충원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미충원인원/구인인원)은 2023년 3분기 기준 12.1%로 300인 이상 사업체(7.1%) 대비 5.0%p 높았으며, 특히 상용근로자의 인력 미충원율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18.7%)가 300인 이상 사업체(8.2%) 대비 10.5%p 높게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3).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 이직률은 2023년 기준 5.5%로 300인 이상 사업체(3.4%) 대비 2.1%p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2%) 대비 0.3%p 증가했다(고용노동부, 각연도a). 2023년 기준 평균 근속년수는 500인 이상(10.4년), 5~9인(5.0년) 등 종사자 규모가 작아질수록 짧게 나타났으며,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평균 근속년수가 감소했다(고용노동부, 각연도b).

중소기업 현장에 비어 있는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크게 선호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빈일자리는 14.8만 명('19)에서 18.6만 명('23)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상용근로자 빈일자리의 96.9%를 차지한다(고용노동부, 각연도a). 하지만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비중에서 중소기업은 5.0%('19)에서 3.6%('23)로, 벤처기업은 2.1%('19)에서 2.0%('23)로 감소한 반면, 창업 등 자영업은 11.9%('19)에서 15.8%('23)로 증가했다(통계청, 각연도b).

청년들은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지 않고 휴가 소진에는 적극적이다. 주업과 부업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29세 이하(5.6%), 30~39세(6.4%) 등 연령이 낮을수록 비중이 낮게 나타났고(통계청, 각연도a ; 노민선, 2024a), 39세 이하 연령에서 일과 가정생활 중에서 일을 우선 시 하는 비중은 최근 10년간 20%p 이상 감소했다(통계청, 각연도b ; 노민선, 2024a). 연차휴가 소진율은 2022년 기준 29세 이하(82.0%)와 30~39세(82.3%)가 타 연령대 대비 높았고, 코로나19 이전 대비 휴가 소진율 증가폭도 크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한편 최근 들어 입사 결정 단계에서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직장생활을 하는데 안정감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 성장의 기회와 업무공간을 꼽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대학내일, 2024).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31번)하고,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90번) 계획을 발표했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상황과 청년들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령별 고용동향 통계를 청년이나 성별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중소기업 청년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청년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 고용의 변화 추이를 성, 교육정도, 업종, 종사자 지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론, 분석개요, 연령별 고용 변화 추이,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 결론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 관련 이슈를 개괄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청년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법률과 고용노동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국가 승인통계의 분류 기준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 적용할 중소기업과 청년을 정의한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연령별 고용의 최근 20년간(2003~2023) 변화 추이를 종사자 규모와 종사자 지위 관점에서 분석한다. 연령과 종사자 규모, 연령과 종사자 지위 간의 다양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종사자 규모는 1~4인, 5~299인, 300인 이상으로, 종사자 지위는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세분화해서 분석한다. 또한 연령별 인구 비중과 취업자 비중 간의 차이를 함께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를 성, 교육 정도, 업종 관점에서 최근 20년간(2003~2023)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연령과 성, 연령과 교육 정도, 연령과 업종 간의 다양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등 청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교육 정도는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로 세분화해서 분석한다. 또한 연령별 인구 비중과 취업자 비중 간의 차이를 함께 살펴본다.

제5장 결론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정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자율연구 24-01]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제 2 장

분석개요

1. 용어의 정의
2. 분석자료 및 방법

제 2 장

분석개요

1 용어의 정의

1)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2015년 1월 1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5302호)을 통해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용하였다. 당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에서 300명 미만으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준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제조업 부문 허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 분야 주요 국가승인통계인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의 경우 종사자 규모별로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을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활동인구 현황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분류 기준인 매출액이 아니라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으로 구분해서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규모별 분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00인 미만 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다.

〈표 2-1〉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종사자 분류 기준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분류기준	○	○	○	○	○	○	○

2) 청년

국내 법령에서는 청년 연령을 대상의 특성에 따라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

첫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29세 이하를 청년 연령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며(법§2.1, 시행령§2),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근로자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률은 군복무 기간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청년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적용하며(시행령 §2),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을 한도로 병역기간을 더하여 청년 연령을 계산한다(시행령§23⑧, §26의5③, §26의7③, §27의4②, §92의13⑥).

둘째, 「청년기본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34세 이하를 청년 연령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법§3.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법§2.5의2), 청년실업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정의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12①).

셋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창업기업, 상인, 농어업인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 39세 이하를 청년 연령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청년창업기업으로 규정하면서(법§2.11),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중장년창업기업과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법2.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가 육성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이 되는 청년상인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법§16, 시행령§6의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을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법§2.2, 시행령§3).

본 연구에서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청년 연령의 하한선을 15세로 명시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청년 연령의 범위를 고려하여 39세를 청년 연령의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다만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 30~34세, 35~39세로 구분해서 고용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2-2〉 법령 상 청년 연령 구분 기준

구분	법률명	조항	내용
29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 §2.1, 시행령 §2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23⑧, §26의5③, §26의7③, §27의4②, §92의13⑥	(청년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 다만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6년을 한도로 병역기간 추가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법§3.1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2.5의2 법§12①	(청년근로자) 채용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청년실업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39세 이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2.11	(청년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16, 시행령§6의2	(청년상인)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법§2.2, 시행령§3	(청년농어업인)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

* 주: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¹⁾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고용노동 관련 대표적인 통계이다.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 101004, 1962. 6. 1)이며, 1963년도에 최초 작성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실시하며, 등록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추출한 1,791개 표본조사구 내 3만 6천 가구를 조사한다. 만 15세 이상인 자 중에서 현역군인, 사회복지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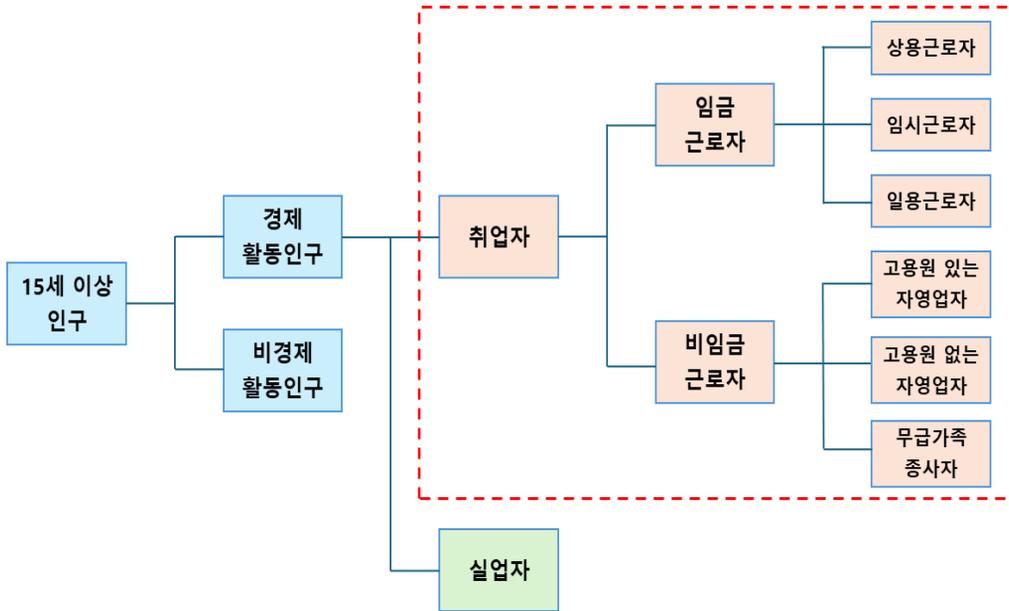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취업자 정의를 따른다.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하며, 동일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한다. 임금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1년 이상 또는 기간 미설정), 임시근로자(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로 구분한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가 해당한다.

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2023), 조사개요(2024a), 통계설명자료서비스(2024b)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2-1] 경제활동인구 구조



*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²⁾(MDIS : 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공공용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확보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자료는 1981년부터 1999년까지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규모별 분석이 가능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업자 수는 조건에 맞는 가중값을 모두 더해 계산했으며, 월별 기준으로 작성된 가중값은 연간자료로 분석하기 위해 12로 나누어 활용하였다. 변수는 ‘성별 코드’, ‘산업’, ‘종사자규모’, ‘종사상지위’, ‘교육정도컨버전코드’, ‘만연령’, ‘가중값’, ‘경제활동상태코드’를 활용하였으며, ‘산업’은 해당 연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2) <https://mdis.kostat.go.kr/index.do>

[자율연구 24-01]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제 3 장

연령별 고용 변화 추이

1. 전체
2. 종사자 규모별
3. 종사자 지위별
4. 시사점

제 3 장

연령별 고용 변화 추이

1 전체

1) 종사자 규모별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9,25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8,416천 명)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30.9%로 300인 이상 대기업(46.6%) 대비 15.7%p 낮게 나타났다. 1~4인 사업체는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35.1%)이 39세 이하 청년(21.3%) 대비 13.8%p 높았다. 5~299인 사업체는 29세 이하 취업자 비중(16.3%)이 대기업(15.7%) 대비 0.6%p 높았지만, 30~39세 비중(20.8%)이 대기업(30.9%) 대비 10.1%p 낮게 나타났다.

〈표 3-1〉 연령별 취업자 현황(규모별, 2023)

(단위 : 천 명(%))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1~4인	5~299인		
39세 이하	7,817(30.9)	2,124(21.3)	5,694(37.0)	1,438(46.6)	9,256(32.6)
29세 이하	3,415(13.5)	913(9.2)	2,502(16.3)	484(15.7)	3,899(13.7)
30~39세	4,402(17.4)	1,211(12.2)	3,191(20.8)	955(30.9)	5,357(18.9)
[30~34세]	[2,251(8.9)]	[572(5.7)]	[1,680(10.9)]	[503(16.3)]	[2,754(9.7)]
[35~39세]	[2,151(8.5)]	[639(6.4)]	[1,512(9.8)]	[452(14.6)]	[2,602(9.2)]
40~49세	5,405(21.3)	1,908(19.1)	3,498(22.8)	855(27.7)	6,260(22.0)
50~59세	6,029(23.8)	2,436(24.5)	3,593(23.4)	649(21.0)	6,677(23.5)
60세 이상	6,078(24.0)	3,494(35.1)	2,583(16.8)	146(4.7)	6,223(21.9)
전체	25,329(100)	9,962(100)	15,367(100)	3,087(100)	28,416(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30.9%)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2.5%p 낮았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은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46.6%)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3.2%p 높게 나타났다. 1~4인 사업체는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21.3%)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2.1%p 낮았으며,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35.1%)은 동 연령대 인구 비중(30.1%) 대비 5.0%p 높게 나타났다. 5~299인 사업체는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37.0%)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3.6% 높았다.

〈표 3-2〉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비중(규모별, 2023)

(단위 : %)

구분	인구 비중	취업자 비중				
		중소기업	(1~4인)	(5~299인)	대기업	전체
39세 이하	33.4	30.9	(21.3)	(37.0)	46.6	32.6
29세 이하	18.5	13.5	(9.2)	(16.3)	15.7	13.7
30~39세	14.9	17.4	(12.2)	(20.8)	30.9	18.9
40~49세	17.5	21.3	(19.1)	(22.8)	27.7	22.0
50~59세	18.9	23.8	(24.5)	(23.4)	21.0	23.5
60세 이상	30.1	24.0	(35.1)	(16.8)	4.7	2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표 3-3〉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단위 : %p)

구분	중소기업	(1~4인)	(5~299인)	대기업	전체
39세 이하	△2.5	(△12.1)	(3.7)	13.2	△0.8
29세 이하	△5.0	(△9.3)	(△2.2)	△2.8	△4.8
30~39세	2.5	(△2.7)	(5.9)	16.0	4.0
40~49세	3.8	(1.6)	(5.3)	10.2	4.5
50~59세	4.9	(5.6)	(4.5)	2.1	4.6
60세 이상	△6.1	(5.0)	(△13.3)	△25.4	-

* 주 1)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에서 인구 비중을 차감한 수치(표 3-2)이며, 각 비중은 반올림한 결과임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종사자 지위별

청년 취업자 비중은 임금근로자(37.8%)가 비임금근로자(15.2%) 대비 22.6%p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21,828천 명)의 37.8%인 8,252천 명이 39세 이하 청년이며, 청년 비임금근로자는 1,003천 명으로 전체 비임금근로자(6,588천 명)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30~59세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임시·일용근로자 대비 높았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이 상용근로자 대비 높게 나타났다. 29세 이하 취업자 비중은 임시·일용근로자(21.6%)가 상용근로자(15.2%) 대비 6.4%p 높았으며, 임시·일용근로자의 34.4%가 60세 이상으로 동 연령대 상용근로자(10.9%) 대비 23.5%p 높게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65.1%가 50세 이상으로 동 연령대 임금근로자(39.5%) 대비 취업자 비중이 25.6%p 높았다. 50~59세 취업자 비중은 비임금근로자(27.0%)가 임금근로자(22.5%) 대비 4.5%p 높았으며,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비임금근로자(38.1%)가 임금근로자(17.0%) 대비 21.1%p 높게 나타났다.

〈표 3-4〉 연령별 취업자 현황(지위별, 2023)

(단위 : 천 명(%))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임시·일용		
39세 이하	8,252(37.8)	6,458(39.9)	1,794(31.7)	1,003(15.2)	9,256(32.6)
29세 이하	3,679(16.9)	2,458(15.2)	1,221(21.6)	220(3.3)	3,899(13.7)
30~39세	4,573(21.0)	4,001(24.7)	573(10.1)	783(11.9)	5,357(18.9)
[30~34세]	[2,421(11.1)]	[2,123(13.1)]	[298(5.3)]	[333(5.1)]	[2,754(9.7)]
[35~39세]	[2,152(9.9)]	[1,878(11.6)]	[274(4.8)]	[450(6.8)]	[2,602(9.2)]
40~49세	4,964(22.7)	4,164(25.8)	800(14.1)	1,296(19.7)	6,260(22.0)
50~59세	4,902(22.5)	3,786(23.4)	1,116(19.7)	1,775(27.0)	6,677(23.5)
60세 이상	3,710(17.0)	1,762(10.9)	1,948(34.4)	2,513(38.1)	6,223(21.9)
전체	21,828(100)	16,170(100)	5,658(100)	6,588(100)	28,416(100)

* 주: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산한 수치를 의미하며, 수치는 모두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임금근로자는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37.8%)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4.4%p 높았으며, 비임금근로자는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15.2%)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8.2%p 낮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세 이하 취업자 비중(15.2%)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5%) 대비 3.3%p 낮았으며, 30~39세 취업자 비중(24.7%)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9%) 대비 9.8%p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는 29세 이하 취업자 비중(21.6%)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5%) 대비 3.1%p 높았으며, 30~39세 취업자 비중(10.1%)은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9%) 대비 4.8%p 낮게 나타났다.

〈표 3-5〉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비중(지위별, 2023)

(단위 : %)

구분	인구 비중	취업자 비중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일용)	비임금근로자	
39세 이하	33.4	37.8	(39.9)	(31.7)	15.2	32.6
29세 이하	18.5	16.9	(15.2)	(21.6)	3.3	13.7
30~39세	14.9	21.0	(24.7)	(10.1)	11.9	18.9
40~49세	17.5	22.7	(25.8)	(14.1)	19.7	22.0
50~59세	18.9	22.5	(23.4)	(19.7)	27.0	23.5
60세 이상	30.1	17.0	(10.9)	(34.4)	38.1	2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산한 수치를 의미하며, 수치는 모두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표 3-6〉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지위별, 2023)

(단위 : %p)

구분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일용)	비임금근로자	전체
39세 이하	4.4	(6.5)	(△1.7)	(△18.2)	△0.8
29세 이하	△1.6	(△3.3)	(3.1)	△15.2	△4.8
30~39세	6.1	(9.8)	(△4.8)	△3.0	4.0
40~49세	5.2	(8.3)	(△3.4)	2.2	4.5
50~59세	3.6	(4.5)	(0.8)	8.1	4.6
60세 이상	△13.1	(△19.2)	(4.3)	8.0	△8.2

* 주 1)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에서 인구 비중을 차감한 수치(표 3-5)이며, 각 비중은 반올림한 결과임

2)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산한 수치를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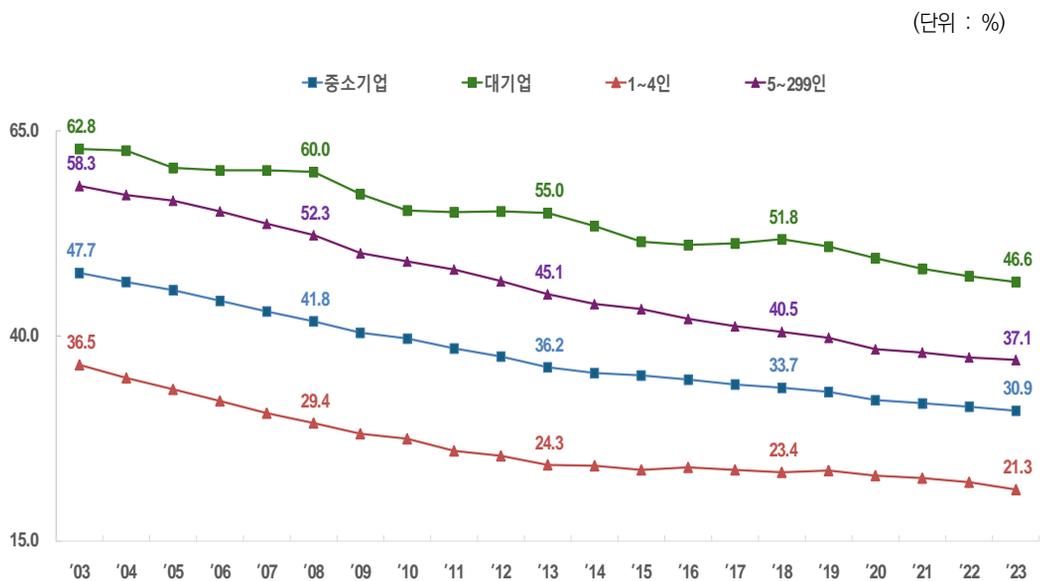
2 종사자 규모별

1) 전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30.9%로 300인 이상 대기업(46.6%) 대비 15.7%p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 20년간 대-중소기업 간 비중 차이는 15.1%p('03)에서 15.7%p('23)로 0.6%p 확대되었다. 최근 20년간 청년 취업자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47.7%('03)에서 30.9%('23)로 16.8%p 줄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62.8%('03)에서 46.6%('23)로 16.2%p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 5~299인 사업체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37.1%로 1~4인 사업체(21.3%) 대비 15.8%p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20년간 비중 차이는 21.8%p('03)에서 15.8%p('23)로 6.0%p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청년 취업자 비중은 1~4인 사업체의 경우 36.5%('03)에서 21.3%('23)로 15.2%p 줄었으며, 5~299인 사업체의 경우 58.3%('03)에서 37.1%('23)로 21.2%p 감소했다.

[그림 3-1]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규모별, 2003~2023)



* 주: 청년은 39세 이하,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하며, 수치는 모두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청년 취업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3,899천 명, 30~39세 5,357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8,416천 명)의 13.7%, 18.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9%(’03)에서 13.7%(’23)로 7.2%p, 30~39세 비중은 28.1%(’03)에서 18.9%(’23)로 9.2%p 감소했다. 50세 이상 고령 취업 비중의 경우 50~59세는 14.2%(’03)에서 23.5%(’23)로 9.3%p, 60세 이상은 9.6%(’03)에서 20.9%(’23)로 11.3%p 증가했다.

〈표 3-7〉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전체,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4,644(20.9)	6,233(28.1)	6,050(27.2)	3,161(14.2)	2,133(9.6)	22,222(100)
2004	4,610(20.3)	6,253(27.6)	6,241(27.5)	3,310(14.6)	2,268(10.0)	22,682(100)
2005	4,485(19.6)	6,207(27.2)	6,307(27.6)	3,507(15.4)	2,324(10.2)	22,831(100)
2006	4,331(18.7)	6,251(27.0)	6,442(27.8)	3,740(16.1)	2,424(10.5)	23,188(100)
2007	4,266(18.1)	6,188(26.3)	6,561(27.8)	3,987(16.9)	2,560(10.9)	23,561(100)
2008	4,138(17.4)	6,133(25.8)	6,630(27.9)	4,255(17.9)	2,618(11.0)	23,775(100)
2009	3,992(16.9)	5,912(25.0)	6,619(27.9)	4,473(18.9)	2,691(11.4)	23,688(100)
2010	3,930(16.4)	5,920(24.6)	6,655(27.7)	4,788(19.9)	2,739(11.4)	24,033(100)
2011	3,907(15.9)	5,879(24.0)	6,718(27.4)	5,145(21.0)	2,877(11.7)	24,526(100)
2012	3,837(15.4)	5,883(23.6)	6,748(27.0)	5,416(21.7)	3,071(12.3)	24,955(100)
2013	3,728(14.7)	5,840(23.1)	6,771(26.8)	5,704(22.5)	3,256(12.9)	25,299(100)
2014	3,802(14.7)	5,805(22.4)	6,896(26.6)	5,947(23.0)	3,448(13.3)	25,897(100)
2015	3,864(14.8)	5,729(21.9)	6,892(26.3)	6,068(23.2)	3,625(13.8)	26,178(100)
2016	3,907(14.8)	5,672(21.5)	6,832(25.9)	6,150(23.3)	3,848(14.6)	26,409(100)
2017	3,907(14.6)	5,643(21.1)	6,783(25.4)	6,302(23.6)	4,090(15.3)	26,725(100)
2018	3,904(14.6)	5,582(20.8)	6,666(24.9)	6,346(23.7)	4,324(16.1)	26,822(100)
2019	3,945(14.5)	5,529(20.4)	6,504(24.0)	6,444(23.8)	4,701(17.3)	27,123(100)
2020	3,763(14.0)	5,364(19.9)	6,346(23.6)	6,356(23.6)	5,076(18.9)	26,904(100)
2021	3,877(14.2)	5,257(19.3)	6,311(23.1)	6,422(23.5)	5,406(19.8)	27,273(100)
2022	3,996(14.2)	5,303(18.9)	6,314(22.5)	6,618(23.6)	5,858(20.9)	28,089(100)
2023	3,899(13.7)	5,357(18.9)	6,260(22.0)	6,677(23.5)	6,223(21.9)	28,416(100)

* 주: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전체 인구 대비 49세 이하 인구 비중은 최근 20년간 감소했다. 청년 인구 비중의 경우 29세 이하는 27.8%(’03)에서 18.5%(’23)로 9.3%p, 30~39세는 22.9%(’03)에서 14.9%(’23)로 8.0%p 줄었으며, 40~49세 인구 비중은 21.0%(’03)에서 17.5%(’23)로 3.5%p 감소했다. 5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의 경우 50~59세는 12.5%(’03)에서 18.9%(’23)로 6.4%p 늘었으며, 60세 이상은 15.7%(’03)에서 30.1%(’23)로 14.4%p 증가했다.

〈표 3-8〉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 추이(2003~2023)

(단위 : %)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50.8	(27.8)	(22.9)	21.0	12.5	15.7	100.0
2004	49.7	(26.9)	(22.8)	21.4	12.9	16.1	100.0
2005	48.6	(26.1)	(22.5)	21.4	13.5	16.4	100.0
2006	47.7	(25.6)	(22.1)	21.4	14.1	16.7	100.0
2007	46.9	(25.2)	(21.6)	21.4	14.6	17.2	100.0
2008	45.9	(24.8)	(21.1)	21.3	15.2	17.6	100.0
2009	44.9	(24.4)	(20.6)	21.2	15.8	18.1	100.0
2010	44.0	(23.8)	(20.1)	20.9	16.5	18.5	100.0
2011	43.0	(23.3)	(19.7)	20.7	17.4	18.9	100.0
2012	42.1	(22.8)	(19.3)	20.6	17.9	19.5	100.0
2013	41.2	(22.3)	(18.8)	20.4	18.4	20.0	100.0
2014	40.3	(22.0)	(18.3)	20.4	18.7	20.6	100.0
2015	39.5	(21.7)	(17.8)	20.1	18.9	21.5	100.0
2016	38.9	(21.5)	(17.4)	19.8	19.0	22.4	100.0
2017	38.2	(21.1)	(17.1)	19.4	19.0	23.3	100.0
2018	37.4	(20.7)	(16.7)	19.1	19.1	24.4	100.0
2019	36.7	(20.4)	(16.3)	18.7	19.2	25.5	100.0
2020	35.8	(19.9)	(15.9)	18.4	19.1	26.7	100.0
2021	34.9	(19.5)	(15.5)	18.1	19.0	28.0	100.0
2022	34.1	(18.9)	(15.2)	17.9	19.0	29.1	100.0
2023	33.4	(18.5)	(14.9)	17.5	18.9	30.1	100.0

* 주: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전체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2.6%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0.8%p 낮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6.9%p('03)에서 -4.8%p('23)로 2.1%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5.2%p('03)에서 4.0%p('23)로 1.2%p 악화되었다. 40~49세와 50~59세는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지만, 비중 차이가 40~49세는 6.2%p('03)에서 4.5%p('23)로 1.7%p 작아졌으며, 50~59세는 1.7%p('03)에서 4.6%p('23)로 2.9%p 커졌다. 60세 이상의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6.1%p('03)에서 -8.2%p('23)로 2.1%p 악화되었다.

〈표 3-9〉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전체,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1.9	(△6.9)	(5.2)	6.2	1.7	△6.1
2004	△1.8	(△6.6)	(4.8)	6.1	1.7	△6.1
2005	△1.8	(△6.5)	(4.7)	6.2	1.9	△6.2
2006	△2.1	(△6.9)	(4.9)	6.4	2.0	△6.2
2007	△2.5	(△7.1)	(4.7)	6.4	2.3	△6.3
2008	△2.7	(△7.4)	(4.7)	6.6	2.7	△6.6
2009	△3.1	(△7.5)	(4.4)	6.7	3.1	△6.7
2010	△3.0	(△7.4)	(4.5)	6.8	3.4	△7.1
2011	△3.1	(△7.4)	(4.3)	6.7	3.6	△7.2
2012	△3.1	(△7.4)	(4.3)	6.4	3.8	△7.2
2013	△3.4	(△7.6)	(4.3)	6.4	4.1	△7.1
2014	△3.2	(△7.3)	(4.1)	6.2	4.3	△7.3
2015	△2.9	(△6.9)	(4.1)	6.2	4.3	△7.7
2016	△2.6	(△6.7)	(4.1)	6.1	4.3	△7.8
2017	△2.5	(△6.5)	(4.0)	6.0	4.6	△8.0
2018	△2.0	(△6.1)	(4.1)	5.8	4.6	△8.3
2019	△1.8	(△5.9)	(4.1)	5.3	4.6	△8.2
2020	△1.9	(△5.9)	(4.0)	5.2	4.5	△7.8
2021	△1.4	(△5.3)	(3.8)	5.0	4.5	△8.2
2022	△1.0	(△4.7)	(3.7)	4.6	4.6	△8.2
2023	△0.8	(△4.8)	(4.0)	4.5	4.6	△8.2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7)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중소기업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3,415천 명, 30~39세 4,402천 명으로 중소기업 취업자(25,329천 명)의 13.5%, 17.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5%('03)에서 13.5%('23)로 7.0%p, 30~39세 비중은 27.2%('03)에서 17.4%('23)로 9.9%p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중의 경우 50~59세는 14.6%('03)에서 23.8%('23)로 9.2%p, 60세 이상은 10.3%('03)에서 24.0%('23)로 13.7%p 증가했다.

〈표 3-10〉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중소기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4,191(20.5)	5,560(27.2)	5,577(27.3)	2,988(14.6)	2,113(10.3)	20,428(100)
2004	4,139(19.8)	5,580(26.8)	5,755(27.6)	3,130(15.0)	2,249(10.8)	20,853(100)
2005	4,001(19.1)	5,536(26.5)	5,782(27.6)	3,300(15.8)	2,303(11.0)	20,921(100)
2006	3,869(18.2)	5,570(26.2)	5,913(27.8)	3,534(16.6)	2,402(11.3)	21,287(100)
2007	3,825(17.6)	5,509(25.4)	6,043(27.8)	3,792(17.5)	2,533(11.7)	21,703(100)
2008	3,693(16.9)	5,447(24.9)	6,126(28.0)	4,035(18.4)	2,588(11.8)	21,888(100)
2009	3,572(16.5)	5,183(23.9)	6,061(28.0)	4,218(19.5)	2,649(12.2)	21,683(100)
2010	3,532(16.0)	5,230(23.7)	6,077(27.5)	4,524(20.5)	2,702(12.2)	22,066(100)
2011	3,485(15.5)	5,193(23.1)	6,117(27.2)	4,881(21.7)	2,840(12.6)	22,516(100)
2012	3,439(15.0)	5,139(22.5)	6,148(26.9)	5,123(22.4)	3,035(13.3)	22,884(100)
2013	3,347(14.5)	5,021(21.7)	6,162(26.7)	5,369(23.2)	3,219(13.9)	23,118(100)
2014	3,387(14.4)	4,989(21.1)	6,250(26.5)	5,560(23.6)	3,406(14.4)	23,592(100)
2015	3,442(14.5)	4,922(20.7)	6,205(26.1)	5,653(23.8)	3,568(15.0)	23,790(100)
2016	3,484(14.6)	4,829(20.2)	6,109(25.5)	5,722(23.9)	3,789(15.8)	23,933(100)
2017	3,497(14.4)	4,785(19.7)	6,079(25.1)	5,867(24.2)	4,024(16.6)	24,251(100)
2018	3,468(14.3)	4,712(19.4)	5,973(24.6)	5,902(24.3)	4,244(17.5)	24,299(100)
2019	3,526(14.4)	4,629(18.9)	5,799(23.6)	5,956(24.3)	4,619(18.8)	24,529(100)
2020	3,319(13.7)	4,483(18.5)	5,604(23.1)	5,839(24.1)	4,987(20.6)	24,232(100)
2021	3,401(13.9)	4,377(17.9)	5,508(22.5)	5,875(24.0)	5,295(21.7)	24,457(100)
2022	3,509(14.0)	4,374(17.4)	5,477(21.8)	6,001(23.9)	5,731(22.8)	25,091(100)
2023	3,415(13.5)	4,402(17.4)	5,405(21.3)	6,029(23.8)	6,078(24.0)	25,329(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0.9%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2.5%p 낮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7.3%p('03)에서 -5.0%p('23)로 2.3%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4.3%p('03)에서 2.5%p('23)로 1.8%p 악화되었다. 40~49세와 50~59세는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지만, 비중 차이가 40~49세는 6.3%p('03)에서 3.8%p('23)로 2.5%p 작아졌으며, 50~59세는 2.1%p('03)에서 4.9%p('23)로 2.8%p 커졌다. 60세 이상의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5.4%p('03)에서 -6.1%p('23)로 0.7%p 악화되었다.

〈표 3-11〉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3.0	(△7.3)	(4.3)	6.3	2.1	△5.4
2004	△3.1	(△7.1)	(4.0)	6.2	2.1	△5.3
2005	△3.0	(△7.0)	(4.0)	6.2	2.3	△5.4
2006	△3.3	(△7.4)	(4.1)	6.4	2.5	△5.4
2007	△3.8	(△7.6)	(3.8)	6.4	2.9	△5.5
2008	△4.1	(△7.9)	(3.8)	6.7	3.2	△5.8
2009	△4.6	(△7.9)	(3.3)	6.8	3.7	△5.9
2010	△4.2	(△7.8)	(3.6)	6.6	4.0	△6.3
2011	△4.4	(△7.8)	(3.4)	6.5	4.3	△6.3
2012	△4.6	(△7.8)	(3.2)	6.3	4.5	△6.2
2013	△4.9	(△7.8)	(2.9)	6.3	4.8	△6.1
2014	△4.8	(△7.6)	(2.8)	6.1	4.9	△6.2
2015	△4.3	(△7.2)	(2.9)	6.0	4.9	△6.5
2016	△4.1	(△6.9)	(2.8)	5.7	4.9	△6.6
2017	△4.1	(△6.7)	(2.6)	5.7	5.2	△6.7
2018	△3.7	(△6.4)	(2.7)	5.5	5.2	△6.9
2019	△3.4	(△6.0)	(2.6)	4.9	5.1	△6.7
2020	△3.6	(△6.2)	(2.6)	4.7	5.0	△6.1
2021	△3.2	(△5.6)	(2.4)	4.4	5.0	△6.3
2022	△2.7	(△4.9)	(2.2)	3.9	4.9	△6.3
2023	△2.5	(△5.0)	(2.5)	3.8	4.9	△6.1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10)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이며,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1~4인 사업체의 청년 취업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913천 명, 30~39세 1,211천 명으로 1~4인 사업체 취업자(9,962천 명)의 9.2%, 12.2%를 차지하고 있다. 1~4인 사업체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13.0%(’03)에서 9.2%(’23)로 3.8%p, 30~39세 비중은 23.6%(’03)에서 12.2%(’23)로 11.4%p 감소했다. 1~4인 사업체의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중은 50~59세는 17.7%(’03)에서 24.5%(’23)로 6.8%p, 60세 이상은 16.4%(’03)에서 35.1%(’23)로 18.7%p 증가했다.

〈표 3-12〉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1~4인,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1,286(13.0)	2,335(23.6)	2,910(29.4)	1,756(17.7)	1,621(16.4)	9,908(100)
2004	1,202(12.1)	2,255(22.8)	2,931(29.6)	1,817(18.3)	1,696(17.1)	9,901(100)
2005	1,159(11.7)	2,172(21.9)	2,928(29.5)	1,927(19.4)	1,745(17.6)	9,932(100)
2006	1,106(11.0)	2,118(21.1)	2,962(29.5)	2,053(20.5)	1,799(17.9)	10,039(100)
2007	1,076(10.7)	2,009(19.9)	2,938(29.2)	2,178(21.6)	1,871(18.6)	10,071(100)
2008	1,047(10.4)	1,900(18.9)	2,899(28.9)	2,282(22.7)	1,914(19.1)	10,042(100)
2009	981(10.2)	1,717(17.9)	2,733(28.5)	2,300(24.0)	1,865(19.4)	9,596(100)
2010	958(10.0)	1,670(17.5)	2,644(27.6)	2,414(25.2)	1,879(19.6)	9,565(100)
2011	941(9.7)	1,578(16.3)	2,596(26.8)	2,594(26.7)	1,994(20.5)	9,703(100)
2012	949(9.6)	1,569(15.9)	2,567(25.9)	2,685(27.1)	2,127(21.5)	9,898(100)
2013	920(9.3)	1,495(15.1)	2,519(25.4)	2,771(27.9)	2,223(22.4)	9,928(100)
2014	936(9.3)	1,497(14.9)	2,532(25.2)	2,811(27.9)	2,283(22.7)	10,059(100)
2015	940(9.5)	1,405(14.2)	2,467(25.0)	2,766(28.0)	2,300(23.3)	9,878(100)
2016	920(9.5)	1,412(14.5)	2,353(24.2)	2,675(27.5)	2,373(24.4)	9,733(100)
2017	915(9.3)	1,410(14.4)	2,315(23.6)	2,706(27.6)	2,463(25.1)	9,809(100)
2018	929(9.6)	1,344(13.8)	2,224(22.9)	2,681(27.6)	2,545(26.2)	9,723(100)
2019	991(10.0)	1,357(13.6)	2,199(22.1)	2,670(26.8)	2,739(27.5)	9,957(100)
2020	927(9.5)	1,327(13.5)	2,078(21.2)	2,520(25.7)	2,947(30.1)	9,799(100)
2021	957(9.7)	1,288(13.0)	2,032(20.6)	2,484(25.1)	3,117(31.6)	9,878(100)
2022	965(9.8)	1,234(12.5)	1,968(19.9)	2,416(24.4)	3,315(33.5)	9,898(100)
2023	913(9.2)	1,211(12.2)	1,908(19.1)	2,436(24.5)	3,494(35.1)	9,962(100)

* 주: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1~4인 사업체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21.4%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2.0%p 낮게 나타났으며, 1~4인 사업체의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14.8%p('03)에서 -9.3%p('23)로 5.5%p 개선되었지만, 30~39세는 0.7%p('03)에서 -2.7%p('23)로 3.4%p 악화되었다. 40세 이상의 1~4인 사업체 취업자 비중은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지만, 비중 차이가 40~49세는 8.4%p('03)에서 1.6%p('23)로 6.8%p, 60세 이상은 0.7%p('03)에서 5.0%p('23)로 4.3%p 악화되었다. 50~59세의 1~4인 사업체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5.2%p('03)에서 5.6%p('23)로 0.4%p 개선되었다.

〈표 3-13〉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1~4인,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14.1	(△14.8)	(0.7)	8.4	5.2	0.7
2004	△14.8	(△14.8)	(0.0)	8.2	5.4	1.0
2005	△15.0	(△14.4)	(△0.6)	8.1	5.9	1.2
2006	△15.6	(△14.6)	(△1.0)	8.1	6.4	1.2
2007	△16.2	(△14.5)	(△1.7)	7.8	7.0	1.4
2008	△16.6	(△14.4)	(△2.2)	7.6	7.5	1.5
2009	△16.9	(△14.2)	(△2.7)	7.3	8.2	1.3
2010	△16.4	(△13.8)	(△2.6)	6.7	8.7	1.1
2011	△17.0	(△13.6)	(△3.4)	6.1	9.3	1.6
2012	△16.6	(△13.2)	(△3.4)	5.3	9.2	2.0
2013	△16.7	(△13.0)	(△3.7)	5.0	9.5	2.4
2014	△16.1	(△12.7)	(△3.4)	4.8	9.2	2.1
2015	△15.8	(△12.2)	(△3.6)	4.9	9.1	1.8
2016	△14.9	(△12.0)	(△2.9)	4.4	8.5	2.0
2017	△14.5	(△11.8)	(△2.7)	4.2	8.6	1.8
2018	△14.0	(△11.1)	(△2.9)	3.8	8.5	1.8
2019	△13.1	(△10.4)	(△2.7)	3.4	7.6	2.0
2020	△12.8	(△10.4)	(△2.4)	2.8	6.6	3.4
2021	△12.3	(△9.8)	(△2.5)	2.5	6.1	3.6
2022	△11.8	(△9.1)	(△2.7)	2.0	5.4	4.4
2023	△12.0	(△9.3)	(△2.7)	1.6	5.6	5.0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12)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5~299인 사업체의 청년 취업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2,502천 명, 30~39세 3,191천 명으로 5~299인 사업체 전체 취업자(15,367천 명)의 16.3%, 20.8%를 차지하고 있다. 5~299인 사업체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7.6%(’03)에서 16.7%(’23)로 10.9%p, 30~39세 비중은 30.6%(’03)에서 20.7%(’23)로 9.9%p 감소했다. 5~299인 사업체의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중은 50~59세는 11.7%(’03)에서 23.4%(’23)로 11.7%p, 60세 이상은 4.7%(’03)에서 16.8%(’23)로 12.1%p 증가했다.

〈표 3-14〉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5~299인,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2,905(27.6)	3,224(30.6)	2,667(25.3)	1,232(11.7)	492(4.7)	10,520(100)
2004	2,936(26.8)	3,325(30.4)	2,823(25.8)	1,313(12.0)	554(5.1)	10,952(100)
2005	2,842(25.9)	3,363(30.6)	2,854(26.0)	1,372(12.5)	557(5.1)	10,989(100)
2006	2,763(24.6)	3,451(30.7)	2,951(26.2)	1,480(13.2)	603(5.4)	11,248(100)
2007	2,750(23.6)	3,500(30.1)	3,105(26.7)	1,614(13.9)	662(5.7)	11,631(100)
2008	2,646(22.3)	3,547(29.9)	3,227(27.2)	1,753(14.8)	674(5.7)	11,846(100)
2009	2,590(21.4)	3,467(28.7)	3,328(27.5)	1,918(15.9)	784(6.5)	12,087(100)
2010	2,574(20.6)	3,560(28.5)	3,433(27.5)	2,110(16.9)	823(6.6)	12,501(100)
2011	2,544(19.9)	3,615(28.2)	3,521(27.5)	2,287(17.8)	846(6.6)	12,813(100)
2012	2,489(19.2)	3,570(27.5)	3,581(27.6)	2,438(18.8)	908(7.0)	12,986(100)
2013	2,427(18.4)	3,526(26.7)	3,643(27.6)	2,598(19.7)	996(7.6)	13,189(100)
2014	2,451(18.1)	3,491(25.8)	3,718(27.5)	2,749(20.3)	1,123(8.3)	13,532(100)
2015	2,502(18.0)	3,517(25.3)	3,738(26.9)	2,887(20.7)	1,269(9.1)	13,912(100)
2016	2,564(18.1)	3,417(24.1)	3,755(26.4)	3,047(21.5)	1,416(10.0)	14,200(100)
2017	2,582(17.9)	3,374(23.4)	3,764(26.1)	3,161(21.9)	1,560(10.8)	14,442(100)
2018	2,539(17.4)	3,368(23.1)	3,748(25.7)	3,221(22.1)	1,699(11.7)	14,576(100)
2019	2,535(17.4)	3,271(22.5)	3,601(24.7)	3,286(22.5)	1,879(12.9)	14,572(100)
2020	2,392(16.6)	3,156(21.9)	3,526(24.4)	3,318(23.0)	2,039(14.1)	14,432(100)
2021	2,444(16.8)	3,089(21.2)	3,476(23.8)	3,392(23.3)	2,178(14.9)	14,579(100)
2022	2,543(16.7)	3,140(20.7)	3,509(23.1)	3,584(23.6)	2,417(15.9)	15,193(100)
2023	2,502(16.3)	3,191(20.8)	3,498(22.8)	3,593(23.4)	2,583(16.8)	15,367(100)

* 주: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5~299인 사업체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7.1%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3.7%p 높게 나타났으며, 5~299인 사업체의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0.2%p('03)에서 -2.2%p('23)로 2.0%p, 30~39세는 7.7%p('03)에서 5.9%p('23)로 2.0%p 악화되었다. 40~49세와 50~59세는 5~299인 사업체 취업자 비중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으며, 비중 차이가 40~49세는 4.3%p('03)에서 5.3%p('23)로 1.0%p, 50~59세는 -0.8%p('03)에서 4.5%p('23)로 5.3%p 커졌다. 60세 이상의 5~299인 사업체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11.0%p('03)에서 -13.3%p('23)로 2.3%p 악화되었다.

〈표 3-15〉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5~299인,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7.5	(△0.2)	(7.7)	4.3	△0.8	△11.0
2004	7.5	(△0.1)	(7.6)	4.4	△0.9	△11.0
2005	7.9	(△0.2)	(8.1)	4.6	△1.0	△11.3
2006	7.6	(△1.0)	(8.6)	4.8	△0.9	△11.3
2007	6.9	(△1.6)	(8.5)	5.3	△0.7	△11.5
2008	6.3	(△2.5)	(8.8)	5.9	△0.4	△11.9
2009	5.1	(△3.0)	(8.1)	6.3	0.1	△11.6
2010	5.2	(△3.2)	(8.4)	6.6	0.4	△11.9
2011	5.1	(△3.4)	(8.5)	6.8	0.4	△12.3
2012	4.6	(△3.6)	(8.2)	7.0	0.9	△12.5
2013	4.0	(△3.9)	(7.9)	7.2	1.3	△12.4
2014	3.6	(△3.9)	(7.5)	7.1	1.6	△12.3
2015	4.8	(△3.7)	(7.5)	6.8	1.8	△12.4
2016	3.3	(△3.4)	(6.7)	6.6	2.5	△12.4
2017	3.1	(△3.2)	(6.3)	6.7	2.9	△12.5
2018	3.1	(△3.3)	(6.4)	6.6	3.0	△12.7
2019	3.2	(△3.0)	(6.2)	6.0	3.3	△12.6
2020	2.7	(△3.3)	(6.0)	6.0	3.9	△12.6
2021	3.0	(△2.7)	(5.7)	5.7	4.3	△13.1
2022	3.3	(△2.2)	(5.5)	5.2	4.6	△13.2
2023	3.7	(△2.2)	(5.9)	5.3	4.5	△13.3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14)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 대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 취업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484천 명, 30~39세 955천 명으로 대기업 취업자(3,087천 명)의 15.7%, 30.9%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5.3%('03)에서 15.7%('23)로 9.6%p, 30~39세 비중은 37.5%('03)에서 30.9%('23)로 6.6%p 감소했다. 대기업의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중은 50~59세는 9.6%('03)에서 21.0%('23)로 11.4%p, 60세 이상은 1.1%('03)에서 4.7%('23)로 3.6%p 증가했다.

〈표 3-16〉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대기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454(25.3)	673(37.5)	474(26.4)	173(9.6)	20(1.1)	1,793(100)
2004	471(25.8)	674(36.8)	486(26.6)	180(9.9)	18(1.0)	1,829(100)
2005	484(25.3)	671(35.2)	525(27.5)	208(10.9)	21(1.1)	1,910(100)
2006	462(24.3)	682(35.9)	529(27.8)	206(10.8)	22(1.2)	1,901(100)
2007	441(23.7)	678(36.5)	518(27.9)	195(10.5)	26(1.4)	1,858(100)
2008	445(23.6)	686(36.4)	504(26.7)	221(11.7)	30(1.6)	1,886(100)
2009	420(20.9)	729(36.4)	559(27.9)	255(12.7)	42(2.1)	2,005(100)
2010	398(20.2)	690(35.1)	578(29.4)	265(13.5)	36(1.8)	1,967(100)
2011	422(21.0)	686(34.1)	601(29.9)	264(13.1)	37(1.8)	2,011(100)
2012	399(19.3)	744(35.9)	600(29.0)	293(14.1)	35(1.7)	2,071(100)
2013	381(17.5)	819(37.6)	610(27.9)	335(15.3)	37(1.7)	2,182(100)
2014	415(18.0)	816(35.4)	646(28.0)	387(16.8)	41(1.8)	2,305(100)
2015	422(17.7)	807(33.8)	687(28.8)	415(17.4)	57(2.4)	2,388(100)
2016	423(17.1)	843(34.0)	724(29.2)	428(17.3)	59(2.4)	2,476(100)
2017	410(16.6)	858(34.7)	704(28.5)	435(17.6)	66(2.7)	2,474(100)
2018	436(17.3)	870(34.5)	693(27.5)	444(17.6)	80(3.2)	2,524(100)
2019	419(16.2)	901(34.7)	705(27.2)	487(18.8)	82(3.2)	2,594(100)
2020	444(16.6)	880(32.9)	742(27.8)	518(19.4)	89(3.3)	2,673(100)
2021	476(16.9)	880(31.2)	803(28.5)	547(19.4)	111(3.9)	2,816(100)
2022	488(16.3)	929(31.0)	837(27.9)	618(20.6)	127(4.2)	2,998(100)
2023	484(15.7)	955(30.9)	855(27.7)	649(21.0)	146(4.7)	3,087(100)

* 주: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46.6%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3.2%p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2.5%p('03)에서 -2.8%p('23)로 0.3%p 악화되었으며, 30~39세는 14.6%p('03)에서 16.0%p('23)로 1.4%p 개선되었다. 40~49세와 50~59세는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으며, 비중 차이가 40~49세는 5.4%p('03)에서 10.2%p('23)로 4.8%p, 50~59세는 -2.9%p('03)에서 2.1%p('23)로 5.0%p 커졌다. 60세 이상의 대기업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14.6%p('03)에서 -25.4%p('23)로 10.8%p 악화되었다.

〈표 3-17〉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대기업,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12.1	(△2.5)	(14.6)	5.4	△2.9	△14.6
2004	12.9	(△1.1)	(14.0)	5.2	△3.0	△15.1
2005	11.9	(△0.8)	(12.7)	6.1	△2.6	△15.3
2006	12.5	(△1.3)	(13.8)	6.4	△3.3	△15.5
2007	13.4	(△1.5)	(14.9)	6.5	△4.1	△15.8
2008	14.1	(△1.2)	(15.3)	5.4	△3.5	△16.0
2009	12.3	(△3.5)	(15.8)	6.7	△3.1	△16.0
2010	11.4	(△3.6)	(15.0)	8.5	△3.0	△16.7
2011	12.1	(△2.3)	(14.4)	9.2	△4.3	△17.1
2012	13.1	(△3.5)	(16.6)	8.4	△3.8	△17.8
2013	14.0	(△4.8)	(18.8)	7.5	△3.1	△18.3
2014	13.1	(△4.0)	(17.1)	7.6	△1.9	△18.8
2015	12.0	(△4.0)	(16.0)	8.7	△1.5	△19.1
2016	12.2	(△4.4)	(16.6)	9.4	△1.7	△20.0
2017	13.1	(△4.5)	(17.6)	9.1	△1.4	△20.6
2018	14.4	(△3.4)	(17.8)	8.4	△1.5	△21.2
2019	14.2	(△4.2)	(18.4)	8.5	△0.4	△22.3
2020	13.7	(△3.3)	(17.0)	9.4	0.3	△23.4
2021	13.1	(△2.6)	(15.7)	10.4	0.4	△24.1
2022	13.2	(△2.6)	(15.8)	10.0	1.6	△24.9
2023	13.2	(△2.8)	(16.0)	10.2	2.1	△25.4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16)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이며,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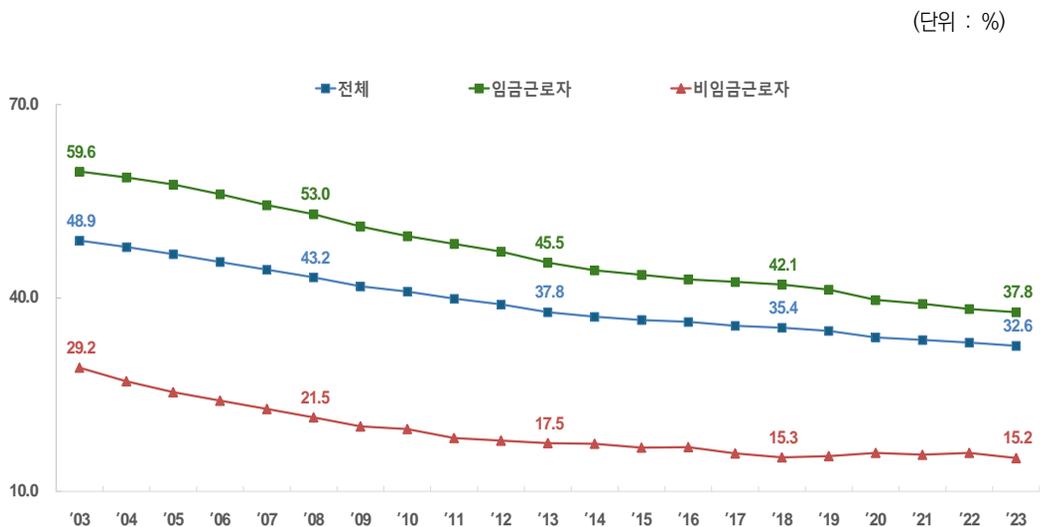
3 종사자 지위별

1) 전체

전체 사업체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32.6%로 최근 20년간 16.3%p(32.6%-48.9%)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7.8%로 비임금근로자(15.2%) 대비 22.6%p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20년간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간 비중 차이는 30.4%p('03)에서 22.6%p('23)로 7.8%p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청년 취업자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59.6%('03)에서 37.8%('23)로 21.8%p 줄었으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29.2%('03)에서 15.2%('03)로 14.0%p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의 청년 비중이 15.8%로 무급가족종사자(11.8%) 대비 4.0%p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20년간 청년 취업자 비중의 경우 자영업자는 28.5%('03)에서 15.8%('23)로 12.7%p 줄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31.7%('03)에서 11.8%('23)로 19.9%p 감소했다.

[그림 3-2]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지위별, 2003~2023)



* 주: 청년은 39세 이하,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수치를 의미하며, 수치는 모두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임금근로자

청년 임금근로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3,679천 명, 30~39세 4,573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1,828천 명)의 16.9%, 21.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8.8%('03)에서 16.9%('23)로 11.8%p, 30~39세 비중은 30.8%('03)에서 21.0%('23)로 9.8%p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0~59세는 11.5%('03)에서 22.5%('23)로 11.0%p, 60세 이상은 5.0%('03)에서 17.0%('23)로 12.0%p 증가했다.

〈표 3-18〉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임금근로자,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4,154(28.8)	4,455(30.8)	3,465(24.0)	1,658(11.5)	717(5.0)	14,449(100)
2004	4,192(28.1)	4,569(30.6)	3,668(24.6)	1,722(11.5)	785(5.3)	14,936(100)
2005	4,102(27.0)	4,650(30.6)	3,789(25.0)	1,832(12.1)	813(5.4)	15,186(100)
2006	3,976(25.5)	4,777(30.6)	3,976(25.5)	1,991(12.8)	888(5.7)	15,608(100)
2007	3,939(24.5)	4,813(29.9)	4,176(25.9)	2,168(13.5)	999(6.2)	16,094(100)
2008	3,806(23.3)	4,869(29.8)	4,285(26.2)	2,378(14.5)	1,018(6.2)	16,357(100)
2009	3,685(22.2)	4,793(28.9)	4,430(26.7)	2,551(15.4)	1,126(6.8)	16,586(100)
2010	3,644(21.3)	4,844(28.3)	4,601(26.9)	2,821(16.5)	1,201(7.0)	17,111(100)
2011	3,626(20.6)	4,892(27.8)	4,737(26.9)	3,065(17.4)	1,276(7.2)	17,596(100)
2012	3,567(19.9)	4,891(27.3)	4,789(26.7)	3,283(18.3)	1,390(7.8)	17,921(100)
2013	3,475(18.9)	4,880(26.6)	4,916(26.8)	3,551(19.3)	1,543(8.4)	18,365(100)
2014	3,544(18.7)	4,856(25.6)	5,071(26.7)	3,792(20.0)	1,694(8.9)	18,959(100)
2015	3,618(18.6)	4,836(24.9)	5,103(26.3)	3,959(20.4)	1,886(9.7)	19,402(100)
2016	3,668(18.7)	4,773(24.3)	5,086(25.9)	4,084(20.8)	2,058(10.5)	19,669(100)
2017	3,681(18.5)	4,786(24.0)	5,054(25.4)	4,201(21.1)	2,212(11.1)	19,934(100)
2018	3,686(18.4)	4,768(23.7)	4,990(24.8)	4,279(21.3)	2,361(11.8)	20,083(100)
2019	3,716(18.2)	4,726(23.1)	4,948(24.2)	4,437(21.7)	2,613(12.8)	20,440(100)
2020	3,514(17.3)	4,561(22.4)	4,904(24.1)	4,482(22.0)	2,870(14.1)	20,332(100)
2021	3,623(17.5)	4,484(21.6)	4,926(23.7)	4,623(22.3)	3,096(14.9)	20,753(100)
2022	3,741(17.4)	4,503(20.9)	4,977(23.1)	4,855(22.6)	3,427(15.9)	21,502(100)
2023	3,679(16.9)	4,573(21.0)	4,964(22.7)	4,902(22.5)	3,710(17.0)	21,828(100)

* 주: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임금근로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7.9%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4.5%p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1.0%p('03)에서 -1.6%p('23)로 2.6%p, 30~39세는 7.9%p('03)에서 6.1%p('23)로 1.8%p 악화되었다. 40~49세와 50~59세는 임금근로자 취업자 비중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으며, 비중 차이가 40~49세는 3.0%p('03)에서 5.2%p('23)로 2.2%p, 50~59세는 -1.0%p('03)에서 3.6%p('23)로 4.6%p 커졌다. 6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간의 차이는 -10.7%p('03)에서 -13.1%p('23)로 2.4%p 악화되었다.

〈표 3-19〉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임금근로자,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8.9	(1.0)	(7.9)	3.0	△1.0	△10.7
2004	9.0	(1.2)	(7.8)	3.2	△1.4	△10.8
2005	9.0	(0.9)	(8.1)	3.6	△1.4	△11.0
2006	8.4	(△0.1)	(8.5)	4.1	△1.3	△11.0
2007	7.6	(△0.7)	(8.3)	4.5	△1.1	△11.0
2008	7.2	(△1.5)	(8.7)	4.9	△0.7	△11.4
2009	6.1	(△2.2)	(8.3)	5.5	△0.4	△11.3
2010	5.7	(△2.5)	(8.2)	6.0	-	△11.5
2011	5.4	(△2.7)	(8.1)	6.2	-	△11.7
2012	5.1	(△2.9)	(8.0)	6.1	0.4	△11.7
2013	4.4	(△3.4)	(7.8)	6.4	0.9	△11.6
2014	4.0	(△3.3)	(7.3)	6.3	1.3	△11.7
2015	4.0	(△3.1)	(7.1)	6.2	1.5	△11.8
2016	4.1	(△2.8)	(6.9)	6.1	1.8	△11.9
2017	4.3	(△2.6)	(6.9)	6.0	2.1	△12.2
2018	4.7	(△2.3)	(7.0)	5.7	2.2	△12.6
2019	4.6	(△2.2)	(6.8)	5.5	2.5	△12.7
2020	3.9	(△2.6)	(6.5)	5.7	2.9	△12.6
2021	4.1	(△2.0)	(6.1)	5.6	3.3	△13.1
2022	4.2	(△1.5)	(5.7)	5.2	3.6	△13.2
2023	4.5	(△1.6)	(6.1)	5.2	3.6	△13.1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18)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청년 상용근로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2,458천 명, 30~39세 4,001천 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16,170천 명)의 15.2%, 24.7%를 차지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8.7%('03)에서 15.2%('23)로 13.5%p, 30~39세 비중은 36.0%('03)에서 24.7%('23)로 11.3%p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의 경우 50~59세는 9.5%('03)에서 23.4%('23)로 13.9%p, 60세 이상은 1.6%('03)에서 10.9%('23)로 9.3%p 증가했다.

〈표 3-20〉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상용근로자,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2,094(28.7)	2,631(36.0)	1,761(24.1)	695(9.5)	120(1.6)	7,301(100)
2004	2,126(27.8)	2,728(35.7)	1,872(24.5)	778(10.2)	146(1.9)	7,650(100)
2005	2,118(26.7)	2,807(35.4)	1,994(25.2)	835(10.5)	169(2.1)	7,922(100)
2006	2,098(25.4)	2,945(35.7)	2,085(25.3)	916(11.1)	204(2.5)	8,248(100)
2007	2,197(25.2)	3,063(35.2)	2,213(25.4)	1,012(11.6)	230(2.6)	8,714(100)
2008	2,171(23.8)	3,194(35.1)	2,352(25.8)	1,153(12.7)	235(2.6)	9,105(100)
2009	2,093(22.1)	3,279(34.6)	2,535(26.7)	1,302(13.7)	269(2.8)	9,479(100)
2010	2,121(20.8)	3,434(33.7)	2,786(27.4)	1,491(14.6)	347(3.4)	10,178(100)
2011	2,140(19.8)	3,596(33.3)	3,012(27.9)	1,652(15.3)	385(3.6)	10,785(100)
2012	2,110(18.8)	3,716(33.0)	3,164(28.1)	1,837(16.3)	422(3.8)	11,250(100)
2013	2,090(17.6)	3,850(32.5)	3,360(28.4)	2,060(17.4)	487(4.1)	11,847(100)
2014	2,140(17.4)	3,840(31.2)	3,502(28.4)	2,287(18.6)	551(4.5)	12,319(100)
2015	2,198(17.3)	3,846(30.2)	3,586(28.2)	2,426(19.1)	660(5.2)	12,716(100)
2016	2,273(17.4)	3,816(29.2)	3,689(28.2)	2,544(19.5)	741(5.7)	13,062(100)
2017	2,300(17.1)	3,870(28.8)	3,756(28.0)	2,679(19.9)	823(6.1)	13,428(100)
2018	2,331(16.9)	3,926(28.5)	3,802(27.6)	2,804(20.4)	910(6.6)	13,772(100)
2019	2,356(16.6)	3,934(27.7)	3,860(27.2)	3,028(21.3)	1,039(7.3)	14,216(100)
2020	2,293(15.8)	3,829(26.4)	3,962(27.3)	3,212(22.1)	1,226(8.4)	14,521(100)
2021	2,396(16.1)	3,789(25.5)	4,010(26.9)	3,345(22.5)	1,347(9.0)	14,887(100)
2022	2,514(16.0)	3,875(24.7)	4,126(26.3)	3,628(23.1)	1,549(9.9)	15,692(100)
2023	2,458(15.2)	4,001(24.7)	4,164(25.8)	3,786(23.4)	1,762(10.9)	16,170(100)

* 주: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상용근로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9.9%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6.5%p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0.9%p('03)에서 -3.3%p('23)로 4.2%p, 30~39세는 13.1%p('03)에서 9.8%p('23)로 3.3%p 악화되었다. 40~49세와 50~59세는 상용근로자 취업자 비중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으며, 비중 차이가 40~49세는 3.1%p('03)에서 8.3%p('23)로 5.2%p, 50~59세는 -3.0%p('03)에서 4.5%p('23)로 7.5%p 커졌다. 60세 이상의 상용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간의 차이는 -14.1%p('03)에서 -19.2%p('23)로 5.1%p 악화되었다.

〈표 3-21〉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상용근로자,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14.0	(0.9)	(13.1)	3.1	△3.0	△14.1
2004	13.8	(0.9)	(12.9)	3.1	△2.7	△14.2
2005	13.5	(0.6)	(12.9)	3.8	△3.0	△14.3
2006	13.4	(△0.2)	(13.6)	3.9	△3.0	△14.2
2007	13.6	-	(13.6)	4.0	△3.0	△14.6
2008	13.0	(△1.0)	(14.0)	4.5	△2.5	△15.0
2009	11.7	(△2.3)	(14.0)	5.5	△2.1	△15.3
2010	10.6	(△3.0)	(13.6)	6.5	△1.9	△15.1
2011	10.1	(△3.5)	(13.6)	7.2	△2.1	△15.3
2012	9.7	(△4.0)	(13.7)	7.5	△1.6	△15.7
2013	9.0	(△4.7)	(13.7)	8.0	△1.0	△15.9
2014	8.3	(△4.6)	(12.9)	8.0	△0.1	△16.1
2015	8.0	(△4.4)	(12.4)	8.1	0.2	△16.3
2016	7.7	(△4.1)	(11.8)	8.4	0.5	△16.7
2017	7.7	(△4.0)	(11.7)	8.6	0.9	△17.2
2018	8.0	(△3.8)	(11.8)	8.5	1.3	△17.8
2019	7.6	(△3.8)	(11.4)	8.5	2.1	△18.2
2020	6.4	(△4.1)	(10.5)	8.9	3.0	△18.3
2021	6.6	(△3.4)	(10.0)	8.8	3.5	△19.0
2022	6.6	(△2.9)	(9.5)	8.4	4.1	△19.2
2023	6.5	(△3.3)	(9.8)	8.3	4.5	△19.2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20)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청년 임시근로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1,092천 명, 30~39세 475천 명으로 전체 임시근로자(4,617천 명)의 23.7%, 10.3%를 차지하고 있다. 임시근로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32.7%('03)에서 23.7%('23)로 9.0%p, 30~39세 비중은 27.6%('03)에서 10.3%('23)로 17.3%p 감소했다. 임시근로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의 경우 50~59세는 11.2%('03)에서 17.6%('23)로 6.4%p, 60세 이상은 6.4%('03)에서 34.5%('23)로 28.1%p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3-22〉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임시근로자,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1,641(32.7)	1,386(27.6)	1,108(22.1)	561(11.2)	319(6.4)	5,015(100)
2004	1,641(32.2)	1,408(27.6)	1,150(22.6)	553(10.9)	340(6.7)	5,092(100)
2005	1,546(30.6)	1,399(27.6)	1,159(22.9)	597(11.8)	358(7.1)	5,059(100)
2006	1,485(28.8)	1,402(27.2)	1,254(24.3)	644(12.5)	379(7.3)	5,163(100)
2007	1,351(26.0)	1,370(26.3)	1,330(25.6)	694(13.3)	457(8.8)	5,202(100)
2008	1,266(24.7)	1,320(25.8)	1,318(25.7)	739(14.4)	478(9.3)	5,122(100)
2009	1,257(24.5)	1,222(23.8)	1,312(25.6)	776(15.1)	568(11.1)	5,134(100)
2010	1,208(23.6)	1,174(23.0)	1,315(25.7)	848(16.6)	563(11.0)	5,107(100)
2011	1,182(23.4)	1,083(21.5)	1,278(25.3)	928(18.4)	573(11.4)	5,045(100)
2012	1,165(23.2)	1,001(19.9)	1,241(24.7)	978(19.4)	647(12.9)	5,032(100)
2013	1,096(22.3)	881(17.9)	1,213(24.7)	998(20.3)	731(14.9)	4,919(100)
2014	1,134(22.4)	882(17.4)	1,226(24.2)	1,024(20.2)	803(15.8)	5,069(100)
2015	1,170(22.9)	862(16.9)	1,180(23.1)	1,031(20.2)	871(17.0)	5,114(100)
2016	1,178(23.0)	837(16.3)	1,090(21.3)	1,049(20.5)	971(18.9)	5,124(100)
2017	1,146(23.0)	799(16.0)	990(19.8)	1,048(21.0)	1,009(20.2)	4,992(100)
2018	1,121(23.1)	733(15.1)	889(18.3)	1,023(21.1)	1,085(22.4)	4,851(100)
2019	1,110(23.2)	669(14.0)	834(17.4)	962(20.1)	1,220(25.4)	4,795(100)
2020	1,013(22.6)	592(13.2)	740(16.5)	849(18.9)	1,290(28.8)	4,483(100)
2021	1,082(23.3)	580(12.5)	722(15.6)	876(18.9)	1,375(29.7)	4,634(100)
2022	1,087(23.2)	515(11.0)	677(14.5)	890(19.0)	1,509(32.3)	4,678(100)
2023	1,092(23.7)	475(10.3)	641(13.9)	815(17.6)	1,594(34.5)	4,617(100)

* 주: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또는 사업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임시근로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4.0%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0.6%p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4.9%p('03)에서 5.2%p('23)로 0.3%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4.7%p('03)에서 -4.6%p('23)로 9.3%p 악화되었다. 40~49세와 50~59세는 임시근로자 취업자 비중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낮으며, 비중 차이가 40~49세는 1.1%p('03)에서 -3.6%p('23)로 4.7%p 악화되었으며, 50~59세는 -1.3%p로 최근 20년간 변화가 없었다. 60세 이상의 임시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간의 차이는 -9.3%p('03)에서 4.4%p('23)로 13.7%p 개선되면서 취업자 비중이 높아졌다.

〈표 3-23〉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임시근로자,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9.6	(4.9)	(4.7)	1.1	△1.3	△9.3
2004	10.1	(5.3)	(4.8)	1.2	△2.0	△9.4
2005	9.6	(4.5)	(5.1)	1.5	△1.7	△9.3
2006	8.3	(3.2)	(5.1)	2.9	△1.6	△9.4
2007	5.5	(0.8)	(4.7)	4.2	△1.3	△8.4
2008	4.6	(△0.1)	(4.7)	4.4	△0.8	△8.3
2009	3.3	(0.1)	(3.2)	4.4	△0.7	△7.0
2010	2.7	(△0.2)	(2.9)	4.8	0.1	△7.5
2011	1.9	(0.1)	(1.8)	4.6	1.0	△7.5
2012	1.0	(0.4)	(0.6)	4.1	1.5	△6.6
2013	△0.9	-	(△0.9)	4.3	1.9	△5.1
2014	△0.5	(0.4)	(△0.9)	3.8	1.5	△4.8
2015	0.3	(1.2)	(△0.9)	3.0	1.3	△4.5
2016	0.4	(1.5)	(△1.1)	1.5	1.5	△3.5
2017	0.8	(1.9)	(△1.1)	0.4	2.0	△3.1
2018	0.8	(2.4)	(△1.6)	△0.8	2.0	△2.0
2019	0.5	(2.8)	(△2.3)	△1.3	0.9	△0.1
2020	-	(2.7)	(△2.7)	△1.9	△0.2	2.1
2021	0.8	(3.8)	(△3.0)	△2.5	△0.1	1.7
2022	0.1	(4.3)	(△4.2)	△3.4	-	3.2
2023	0.6	(5.2)	(△4.6)	△3.6	△1.3	4.4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22)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청년 일용근로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129천 명, 30~39세 98천 명으로 전체 일용근로자(1,042천 명)의 12.4%, 9.4%를 차지하고 있다. 일용근로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19.7%('03)에서 12.4%('23)로 7.3%p, 30~39세 비중은 20.5%('03)에서 9.4%('23)로 11.1%p 감소했다. 일용근로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의 경우 50~59세는 18.8%('03)에서 28.9%('23)로 10.1%p, 60세 이상은 13.0%('03)에서 34.0%('23)로 21.0%p 증가했다.

〈표 3-24〉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일용근로자,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419(19.7)	438(20.5)	596(27.9)	402(18.8)	278(13.0)	2,133(100)
2004	425(19.4)	433(19.7)	646(29.4)	391(17.8)	299(13.6)	2,194(100)
2005	438(19.8)	445(20.2)	636(28.9)	400(18.1)	286(13.0)	2,205(100)
2006	394(17.9)	429(19.5)	637(29.0)	431(19.6)	305(13.9)	2,197(100)
2007	391(18.0)	379(17.4)	633(29.0)	461(21.2)	313(14.4)	2,178(100)
2008	369(17.3)	355(16.7)	615(28.9)	487(22.9)	305(14.3)	2,130(100)
2009	335(17.0)	291(14.8)	584(29.6)	473(24.0)	290(14.7)	1,973(100)
2010	315(17.3)	237(13.0)	501(27.4)	482(26.4)	292(16.0)	1,826(100)
2011	304(17.2)	213(12.0)	447(25.3)	485(27.4)	318(18.0)	1,765(100)
2012	292(17.8)	175(10.7)	384(23.4)	467(28.5)	321(19.6)	1,639(100)
2013	289(18.1)	149(9.3)	344(21.5)	493(30.8)	325(20.3)	1,599(100)
2014	271(17.3)	134(8.6)	344(21.9)	481(30.6)	340(21.7)	1,570(100)
2015	251(16.0)	128(8.1)	336(21.4)	502(31.9)	356(22.6)	1,572(100)
2016	218(14.7)	119(8.1)	307(20.7)	492(33.2)	347(23.4)	1,483(100)
2017	235(15.5)	117(7.7)	308(20.3)	474(31.3)	380(25.1)	1,514(100)
2018	234(16.0)	110(7.5)	299(20.5)	452(31.0)	366(25.0)	1,460(100)
2019	250(17.5)	123(8.6)	255(17.8)	447(31.3)	355(24.8)	1,429(100)
2020	209(15.8)	141(10.6)	202(15.2)	421(31.7)	355(26.7)	1,328(100)
2021	146(11.8)	115(9.3)	193(15.7)	403(32.7)	375(30.4)	1,231(100)
2022	140(12.4)	113(10.0)	173(15.3)	337(29.8)	369(32.6)	1,132(100)
2023	129(12.4)	98(9.4)	159(15.3)	301(28.9)	354(34.0)	1,042(100)

* 주: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일용근로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21.8%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1.6%p 낮게 나타났으며, 일용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8.1%p('03)에서 -6.1%p('23)로 2.0%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2.4%p('03)에서 -5.5%p('23)로 3.1%p 악화되었다. 50~59세와 60세 이상은 일용근로자 취업자 비중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으며, 비중 차이가 50~59세는 6.3%p('03)에서 10.0%p('23)로 4.7%p, 60세 이상은 -2.7%p('03)에서 3.9%p('23)로 6.6%p 개선되었다. 40~49세 일용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6.9%p('03)에서 -2.2%p('23)로 9.1%p 악화되면서 취업자 비중이 낮아졌다.

〈표 3-25〉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일용근로자,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10.5	(△8.1)	(△2.4)	6.9	6.3	△2.7
2004	△10.6	(△7.5)	(△3.1)	8.0	4.9	△2.5
2005	△9.2	(△6.3)	(△2.3)	7.5	4.6	△3.4
2006	△10.3	(△7.7)	(△2.6)	7.6	5.5	△2.8
2007	△11.6	(△7.2)	(△4.2)	7.6	6.6	△2.8
2008	△11.9	(△7.5)	(△4.4)	7.6	7.7	△3.3
2009	△13.2	(△7.4)	(△5.8)	8.4	8.2	△3.4
2010	△13.6	(△6.5)	(△7.1)	6.5	9.9	△2.5
2011	△13.8	(△6.1)	(△7.7)	4.6	10.0	△0.9
2012	△13.6	(△5.0)	(△8.6)	2.8	10.6	0.1
2013	△13.7	(△4.2)	(△9.5)	1.1	12.4	0.3
2014	△14.4	(△4.7)	(△9.7)	1.5	11.9	1.1
2015	△15.4	(△5.7)	(△9.7)	1.3	13.0	1.1
2016	△16.1	(△6.8)	(△9.3)	0.9	14.2	1.0
2017	△15.0	(△5.6)	(△9.4)	0.9	12.3	1.8
2018	△13.9	(△4.7)	(△9.2)	1.4	11.9	0.6
2019	△10.6	(△2.9)	(△7.7)	△0.9	12.1	△0.7
2020	△9.4	(△4.1)	(△5.3)	△3.2	12.6	-
2021	△13.9	(△7.7)	(△6.2)	△2.4	13.7	2.4
2022	△13.7	(△6.5)	(△5.2)	△2.6	10.8	3.5
2023	△11.6	(△6.1)	(△5.5)	△2.2	10.0	3.9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24)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 비임금근로자

청년 비임금근로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220천 명, 30~39세 783천 명으로 전체 비임금근로자(6,588천 명)의 3.3%, 11.9%를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6.3%('03)에서 3.3%('23)로 3.0%p, 30~39세 비중은 22.9%('03)에서 11.9%('23)로 11.0%p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50~59세는 19.3%('03)에서 27.0%('23)로 7.7%p, 60세 이상은 18.2%('03)에서 38.2%('23)로 20.0%p 증가했다.

〈표 3-26〉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비임금근로자,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490(6.3)	1,779(22.9)	2,586(33.3)	1,503(19.3)	1,416(18.2)	7,773(100)
2004	418(5.4)	1,685(21.7)	2,572(33.2)	1,588(20.5)	1,483(19.1)	7,746(100)
2005	383(5.0)	1,557(20.4)	2,518(32.9)	1,676(21.9)	1,510(19.8)	7,645(100)
2006	355(4.7)	1,475(19.5)	2,467(32.5)	1,748(23.1)	1,536(20.3)	7,580(100)
2007	328(4.4)	1,375(18.4)	2,385(31.9)	1,819(24.4)	1,560(20.9)	7,467(100)
2008	332(4.5)	1,264(17.0)	2,345(31.6)	1,877(25.3)	1,600(21.6)	7,418(100)
2009	306(4.3)	1,119(15.8)	2,189(30.8)	1,922(27.1)	1,565(22.0)	7,102(100)
2010	286(4.1)	1,076(15.5)	2,054(29.7)	1,968(28.4)	1,538(22.2)	6,922(100)
2011	281(4.0)	987(14.2)	1,981(28.6)	2,080(30.0)	1,601(23.1)	6,930(100)
2012	270(3.8)	992(14.1)	1,959(27.8)	2,132(30.3)	1,681(23.9)	7,034(100)
2013	254(3.7)	960(13.8)	1,855(26.8)	2,153(31.0)	1,713(24.7)	6,934(100)
2014	257(3.7)	948(13.7)	1,825(26.3)	2,155(31.1)	1,753(25.3)	6,939(100)
2015	246(3.6)	892(13.2)	1,789(26.4)	2,109(31.1)	1,739(25.7)	6,776(100)
2016	239(3.5)	899(13.3)	1,747(25.9)	2,065(30.6)	1,790(26.6)	6,740(100)
2017	226(3.3)	857(12.6)	1,729(25.5)	2,101(30.9)	1,878(27.7)	6,791(100)
2018	219(3.2)	814(12.1)	1,676(24.9)	2,067(30.7)	1,963(29.1)	6,739(100)
2019	230(3.4)	803(12.0)	1,556(23.3)	2,007(30.0)	2,087(31.2)	6,683(100)
2020	248(3.8)	802(12.2)	1,442(21.9)	1,875(28.5)	2,205(33.6)	6,573(100)
2021	254(3.9)	773(11.8)	1,385(21.2)	1,799(27.6)	2,310(35.4)	6,520(100)
2022	255(3.9)	800(12.2)	1,337(20.3)	1,763(26.8)	2,431(36.9)	6,587(100)
2023	220(3.3)	783(11.9)	1,296(19.7)	1,775(27.0)	2,513(38.2)	6,588(100)

* 주: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비임금근로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15.2%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8.2%p 낮게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21.5%p('03)에서 -15.2%p('23)로 6.3%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0.0%p('03)에서 -3.0%p('23)로 3.0%p 악화되었다. 40세 이상의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비중은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으며, 50~59세는 6.8%p('03)에서 8.1%p('23)로 1.3%p, 60세 이상은 2.5%p('03)에서 8.1%p('23)로 5.6%p 커졌다. 40~49세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12.3%p('03)에서 2.2%p('23)로 10.1%p 악화되면서 취업자 비중이 낮아졌다.

〈표 3-27〉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비임금근로자,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21.5	(△21.5)	-	12.3	6.8	2.5
2004	△22.6	(△21.5)	(△1.1)	11.8	7.6	3.0
2005	△23.2	(△21.1)	(△2.1)	11.5	8.4	3.4
2006	△23.5	(△20.9)	(△2.6)	11.1	9.0	3.6
2007	△24.0	(△20.8)	(△3.2)	10.5	9.8	3.7
2008	△24.4	(△20.3)	(△4.1)	10.3	10.1	4.0
2009	△24.9	(△20.1)	(△4.8)	9.6	11.3	3.9
2010	△24.3	(△19.7)	(△4.6)	8.8	11.9	3.7
2011	△24.8	(△19.3)	(△5.5)	7.9	12.6	4.2
2012	△24.2	(△19.0)	(△5.2)	7.2	12.4	4.4
2013	△23.6	(△18.6)	(△5.0)	6.4	12.6	4.7
2014	△22.9	(△18.3)	(△4.6)	5.9	12.4	4.7
2015	△22.7	(△18.1)	(△4.6)	6.3	12.2	4.2
2016	△22.1	(△18.0)	(△4.1)	6.1	11.6	4.2
2017	△23.3	(△17.8)	(△4.5)	6.1	11.9	4.4
2018	△22.1	(△17.5)	(△4.6)	5.8	11.6	4.7
2019	△21.3	(△17.0)	(△4.3)	4.6	10.8	5.7
2020	△19.8	(△16.1)	(△3.7)	3.5	9.4	6.9
2021	△19.3	(△15.6)	(△3.7)	3.1	8.6	7.4
2022	△18.0	(△15.0)	(△3.0)	2.4	7.8	7.8
2023	△18.2	(△15.2)	(△3.0)	2.2	8.1	8.1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26)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청년 자영업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191천 명, 30~39세 706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5,689천 명)의 3.4%, 12.4%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5.4%(’03)에서 3.4%(’23)로 2.0%p, 30~39세 비중은 23.0%(’03)에서 12.4%(’23)로 10.6%p 감소했다.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의 경우 50~59세는 19.7%(’03)에서 27.3%(’23)로 7.6%p, 60세 이상은 18.1%(’03)에서 36.4%(’23)로 18.3%p 증가했다.

〈표 3-28〉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자영업자,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329(5.4)	1,398(23.0)	2,043(33.7)	1,198(19.7)	1,098(18.1)	6,066(100)
2004	273(4.4)	1,357(22.0)	2,074(33.7)	1,290(20.9)	1,167(18.9)	6,161(100)
2005	249(4.1)	1,267(20.6)	2,057(33.5)	1,369(22.3)	1,199(19.5)	6,141(100)
2006	232(3.8)	1,212(19.8)	2,020(33.1)	1,422(23.3)	1,224(20.0)	6,109(100)
2007	224(3.7)	1,146(19.0)	1,949(32.2)	1,474(24.4)	1,254(20.7)	6,048(100)
2008	241(4.0)	1,046(17.4)	1,915(31.9)	1,514(25.2)	1,289(21.5)	6,005(100)
2009	214(3.7)	931(16.2)	1,787(31.1)	1,561(27.1)	1,257(21.9)	5,749(100)
2010	198(3.5)	907(16.1)	1,686(29.9)	1,605(28.4)	1,246(22.1)	5,642(100)
2011	193(3.4)	821(14.5)	1,642(29.0)	1,701(30.1)	1,301(23.0)	5,657(100)
2012	188(3.3)	833(14.4)	1,628(28.2)	1,760(30.5)	1,359(23.6)	5,768(100)
2013	167(2.9)	811(14.2)	1,544(27.1)	1,777(31.2)	1,404(24.6)	5,703(100)
2014	170(3.0)	806(14.1)	1,532(26.8)	1,771(31.0)	1,441(25.2)	5,720(100)
2015	160(2.8)	770(13.7)	1,517(27.0)	1,751(31.2)	1,424(25.3)	5,622(100)
2016	163(2.9)	777(13.8)	1,486(26.5)	1,719(30.6)	1,469(26.2)	5,614(100)
2017	158(2.8)	739(13.0)	1,487(26.2)	1,758(30.9)	1,540(27.1)	5,681(100)
2018	162(2.9)	698(12.4)	1,456(25.8)	1,717(30.5)	1,604(28.4)	5,638(100)
2019	173(3.1)	694(12.4)	1,357(24.2)	1,670(29.8)	1,711(30.5)	5,606(100)
2020	189(3.4)	708(12.8)	1,255(22.7)	1,569(28.4)	1,810(32.7)	5,531(100)
2021	200(3.6)	690(12.5)	1,222(22.2)	1,516(27.5)	1,886(34.2)	5,513(100)
2022	213(3.8)	707(12.6)	1,201(21.3)	1,512(26.9)	1,999(35.5)	5,632(100)
2023	191(3.4)	706(12.4)	1,164(20.5)	1,554(27.3)	2,073(36.4)	5,689(100)

* 주: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자영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15.8%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7.6%p 낮게 나타났으며, 자영업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22.4%p('03)에서 -15.1%p('23)로 7.3%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0.1%p('03)에서 -2.5%p('23)로 2.6%p 악화되었다. 40세 이상의 자영업자 취업자 비중은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으며, 50~59세는 7.2%p('03)에서 8.4%p('23)로 1.2%p, 60세 이상은 2.4%p('03)에서 6.3%p('23)로 3.9%p 커졌다. 40~49세 자영업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12.7%p('03)에서 3.0%p('23)로 9.7%p 악화되면서 취업자 비중이 낮아졌다.

〈표 3-29〉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자영업자,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22.3	(△22.4)	(0.1)	12.7	7.2	2.4
2004	△23.3	(△22.5)	(△0.8)	12.3	8.0	2.8
2005	△23.9	(△22.0)	(△1.9)	12.1	8.8	3.1
2006	△24.1	(△21.8)	(△2.3)	11.7	9.2	3.3
2007	△24.1	(△21.5)	(△2.6)	10.8	9.8	3.5
2008	△24.5	(△20.8)	(△3.7)	10.6	10.0	3.9
2009	△25.1	(△20.7)	(△4.4)	9.9	11.3	3.8
2010	△24.3	(△20.3)	(△4.0)	9.0	11.9	3.6
2011	△25.1	(△19.9)	(△5.2)	8.3	12.7	4.1
2012	△24.4	(△19.5)	(△4.9)	7.6	12.6	4.1
2013	△24.0	(△19.4)	(△4.6)	6.7	12.8	4.6
2014	△23.2	(△19.0)	(△4.2)	6.4	12.3	4.6
2015	△23.0	(△18.9)	(△4.1)	6.9	12.3	3.8
2016	△22.2	(△18.6)	(△3.6)	6.7	11.6	3.8
2017	△22.4	(△18.3)	(△4.1)	6.8	11.9	3.8
2018	△22.1	(△17.8)	(△4.3)	6.7	11.4	4.0
2019	△21.2	(△17.3)	(△3.9)	5.5	10.6	5.0
2020	△19.6	(△16.5)	(△3.1)	4.3	9.3	6.0
2021	△18.9	(△15.9)	(△3.0)	4.1	8.5	6.2
2022	△17.7	(△15.1)	(△2.6)	3.4	7.9	6.4
2023	△17.6	(△15.1)	(△2.5)	3.0	8.4	6.3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28)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청년 무급가족종사자는 2023년 기준 29세 이하 29천 명, 30~39세 77천 명으로 전체 무급가족종사자(899천 명)의 3.2%, 8.6%를 차지하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9.4%('03)에서 3.2%('23)로 6.2%p, 30~39세 비중은 22.3%('03)에서 8.6%('23)로 13.7%p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0~59세는 17.9%('03)에서 24.7%('23)로 6.8%p, 60세 이상은 18.6%('03)에서 48.9%('23)로 30.3%p 증가했다.

〈표 3-30〉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무급가족종사자,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003	161(9.4)	381(22.3)	542(31.8)	305(17.9)	319(18.6)	1,707(100)
2004	145(9.1)	328(20.7)	499(31.5)	298(18.8)	316(19.9)	1,585(100)
2005	135(9.0)	290(19.3)	461(30.7)	307(20.4)	311(20.7)	1,503(100)
2006	123(8.3)	263(17.9)	447(30.4)	327(22.2)	312(21.2)	1,471(100)
2007	104(7.3)	228(16.1)	436(30.7)	344(24.3)	306(21.6)	1,419(100)
2008	91(6.4)	218(15.5)	430(30.4)	363(25.7)	311(22.0)	1,413(100)
2009	92(6.8)	188(13.9)	402(29.7)	361(26.7)	308(22.8)	1,352(100)
2010	89(6.9)	169(13.2)	368(28.7)	363(28.3)	291(22.8)	1,279(100)
2011	87(6.9)	167(13.1)	340(26.7)	379(29.8)	300(23.6)	1,273(100)
2012	83(6.5)	159(12.6)	331(26.1)	372(29.4)	322(25.4)	1,266(100)
2013	87(7.1)	149(12.1)	311(25.3)	376(30.5)	309(25.1)	1,232(100)
2014	87(7.2)	142(11.6)	293(24.1)	384(31.5)	313(25.6)	1,219(100)
2015	86(7.4)	123(10.6)	272(23.6)	358(31.0)	315(27.3)	1,153(100)
2016	76(6.7)	122(10.8)	261(23.2)	346(30.8)	321(28.5)	1,126(100)
2017	67(6.1)	119(10.7)	242(21.8)	343(31.0)	338(30.4)	1,110(100)
2018	57(5.2)	115(10.5)	220(20.0)	349(31.7)	359(32.7)	1,101(100)
2019	57(5.3)	109(10.1)	198(18.4)	337(31.3)	376(34.9)	1,077(100)
2020	59(5.7)	94(9.1)	187(17.9)	306(29.3)	395(38.0)	1,042(100)
2021	55(5.4)	83(8.2)	162(16.1)	283(28.1)	424(42.1)	1,007(100)
2022	43(4.5)	93(9.8)	136(14.2)	251(26.3)	432(45.3)	955(100)
2023	29(3.2)	77(8.6)	132(14.6)	222(24.7)	440(48.9)	899(100)

* 주: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무급가족종사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11.8%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21.6%p 낮게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의 경우 29세 이하는 -18.4%p('03)에서 -15.3%p('23)로 3.1%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0.6%p('03)에서 -6.3%p('23)로 5.7%p 악화되었다. 50~59세와 60세 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비중은 동 연령대 인구 비중 대비 높으며, 50~59세는 5.4%p('03)에서 5.8%p('23)로 0.4%p, 60세 이상은 2.9%p('03)에서 18.8%p('23)로 15.9%p 커졌다. 40~49세 자영업자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10.8%p('03)에서 -2.9%p('23)로 13.7%p 악화되면서 취업자 비중이 낮아졌다.

〈표 3-31〉 연령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무급가족종사자, 2003~2023)

(단위 : %p)

구분	39세 이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19.0	(△18.4)	(△0.6)	10.8	5.4	2.9
2004	19.9	(△17.8)	(△2.1)	10.1	5.9	3.8
2005	20.3	(△17.1)	(△3.2)	9.3	6.9	4.3
2006	21.5	(△17.3)	(△4.2)	9.0	8.1	4.5
2007	23.4	(△17.9)	(△5.5)	9.3	9.7	4.4
2008	24.0	(△18.4)	(△5.6)	9.1	10.5	4.4
2009	24.3	(△17.6)	(△6.7)	8.5	10.9	4.7
2010	23.8	(△16.9)	(△6.9)	7.8	11.8	4.3
2011	23.0	(△16.4)	(△6.6)	6.0	12.4	4.7
2012	23.0	(△16.3)	(△6.7)	5.5	11.5	5.9
2013	21.9	(△15.2)	(△6.7)	4.9	12.1	5.1
2014	21.5	(△14.8)	(△6.7)	3.7	12.8	5.0
2015	21.5	(△14.3)	(△7.2)	3.5	12.1	5.8
2016	21.4	(△14.8)	(△6.6)	3.4	11.8	6.1
2017	21.4	(△15.0)	(△6.4)	2.4	12.0	7.1
2018	21.7	(△15.5)	(△6.2)	0.9	12.6	8.3
2019	21.3	(△15.1)	(△6.2)	△0.3	12.1	9.4
2020	21.0	(△14.2)	(△6.8)	△0.5	10.2	11.3
2021	21.4	(△14.1)	(△7.3)	△2.0	9.1	14.1
2022	19.8	(△14.4)	(△5.4)	△3.7	7.3	16.2
2023	21.6	(△15.3)	(△6.3)	△2.9	5.8	18.8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표 3-30)에서 인구 비중(표 3-8)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4 시사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30.9%로 300인 이상 대기업(46.6%) 대비 15.7%p 낮으며, 최근 20년간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폭은 16.8%p로 대기업(16.2%p) 대비 다소 크게 나타났다. 3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중(33.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30.9%)은 2.5%p 낮고, 대기업(46.6%)은 13.2%p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유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청년 구직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19)에서 3.6%(‘23)로 감소했다(통계청, 각연도b).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연봉 수준을 꼽고 있으며(중소기업중앙회, 2022),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노민선, 2023a).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7.8%로 비임금근로자(15.2%) 대비 22.6%p 높으며, 3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중(33.4%)과 비교했을 때 4.4%p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15.2%로 임시근로자(23.7%) 대비 8.5%p 낮으며, 최근 20년간 13.5%p 감소했다. 2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중(18.5%)과 비교했을 때, 상용근로자(15.2%)는 3.3%p 낮고, 임시근로자(23.7%)는 5.2%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들이 구하는 첫 번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빈일자리는 14.8만 명(‘19)에서 18.6만 명(‘23)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상용근로자 빈일자리의 96.9%를 차지한다(고용노동부, 각연도a). 따라서 청년 구직자와 께찮은 중소기업 간의 구인-구직 연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청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에서 자영업(창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19)에서 15.8%(‘23)로 증가했지만(통계청, 각연도b), 30~39세 기술창업기업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했다(중소벤처기업부, 각연도). 일정 수준 이상 혁신 역량을 보유한 30대 중심의 청년 기술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자율연구 24-01]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제 4 장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

1. 전체
2. 성별
3. 교육 정도별
4. 업종별
5. 시사점

제 4 장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 변화 추이

1 전체

1) 성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2023년 기준 여성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31.8%)은 중소기업 남성 취업자 중 청년 비중(30.1%) 대비 1.7%p 높았지만, 30~39세 취업자 비중은 여성(16.1%)이 남성(18.4%) 대비 2.3%p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 중 청년 비중(31.8%)은 300인 이상 대기업 여성 취업자 중 청년 비중(57.8%) 대비 26.0%p 낮았으며, 30~39세 취업자 비중은 중소기업 여성(16.1%)이 대기업 여성(34.2%) 대비 18.1%p 낮게 나타났다.

〈표 4-1〉 성별 청년 취업자 현황(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중소기업	남성	1,624(11.7)	1,299(9.3)	1,272(9.1)	4,196(30.1)	13,942(100)
	여성	1,791(15.7)	952(8.4)	878(7.7)	3,621(31.8)	11,386(100)
	소계	3,415(13.5)	2,251(8.9)	2,151(8.5)	7,817(30.9)	25,329(100)
대기업	남성	229(11.4)	294(14.6)	293(14.6)	815(40.6)	2,010(100)
	여성	254(23.6)	210(19.4)	159(14.8)	623(57.8)	1,078(100)
	소계	484(15.7)	503(16.3)	452(14.6)	1438(46.6)	3,087(100)
전체	남성	1,853(11.6)	1,593(10.0)	1,565(9.8)	5,011(31.4)	15,952(100)
	여성	2,045(16.4)	1,162(9.3)	1,038(8.3)	4,245(34.1)	12,464(100)
	합계	3,899(13.7)	2,754(9.7)	2,602(9.2)	9,256(32.6)	28,416(100)

*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취업자 대비 해당 연령대 취업자 비중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남성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30.1%)이 동 연령대 남성 인구 비중(34.7%) 대비 4.6%p 낮았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40.6%)이 동 연령대 남성 인구 비중(34.7%) 대비 5.9%p 높게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34.8%)이 동 연령대 여성 인구 비중(32.2%) 대비 2.6%p 높았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여성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57.8%)이 동 연령대 여성 인구 비중(32.2%) 대비 25.6%p 높게 나타났다.

〈표 4-2〉 남성의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단위 : %)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인구 비중(A)		18.8	15.9		34.7	100.0
중소 기업	취업자 비중(B1)	11.7	9.3	9.1	30.1	100.0
	차이(B1-A)	△7.1p	2.5p		△4.6p	-
대 기업	취업자 비중(B2)	11.4	14.6	14.6	40.6	100.0
	차이(B2-A)	△7.4p	13.3p		5.9p	-
전체	취업자 비중(B3)	11.6	10.0	9.8	31.4	100.0
	차이(B3-A)	△7.2p	3.9p		△3.3p	-

* 주 1) 인구(취업자) 비중은 전체 인구(취업자) 대비 해당 연령대 인구(취업자) 비중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표 4-3〉 여성의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단위 : %)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인구 비중(A)		18.2	14.0		32.2	100.0
중소 기업	취업자 비중(B1)	15.7	8.4	7.7	34.8	100.0
	차이(B1-A)	△2.5p	2.1p		2.6p	-
대 기업	취업자 비중(B2)	23.6	19.4	14.8	57.8	100.0
	차이(B2-A)	5.4p	20.2p		25.6p	-
전체	취업자 비중(B3)	16.4	9.3	8.3	34.1	100.0
	차이(B3-A)	△1.8p	3.6p		1.9p	-

* 주 1) 인구(취업자) 비중은 전체 인구(취업자) 대비 해당 연령대 인구(취업자) 비중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교육 정도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졸 이하와 대학원졸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21.3%와 24.8%로 전문대졸(45.4%)과 대졸(42.0%) 대비 17.2%p~24.1%p까지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졸 이하 취업자 중 청년 비중(21.3%)은 300인 이상 대기업 고졸 이하 취업자 중 청년 비중(30.1%) 대비 8.8%p 낮았으며, 중소기업 전문대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45.4%)은 대기업 전문대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51.9%) 대비 6.5%p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42.0%)은 대기업 대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54.9%) 대비 12.9%p 낮았으며, 중소기업 대학원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24.8%)은 대기업 대학원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31.9%) 대비 7.1%p 낮게 나타났다.

〈표 4-4〉 교육 정도별 청년 취업자 현황(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중 소 기 업	고졸 이하	1,648(12.3)	615(4.6)	599(4.5)	2,863(21.3)	13,420(100)
	전문대졸	695(19.5)	479(13.5)	443(12.5)	1,618(45.4)	3,561(100)
	대졸	1,031(14.0)	1,069(14.5)	990(13.5)	3,091(42.0)	7,354(100)
	대학원졸	41(4.1)	88(8.8)	117(11.8)	246(24.8)	993(100)
	소계	3,415(13.5)	2,251(8.9)	2,151(8.5)	7,817(30.9)	25,329(100)
대 기 업	고졸 이하	96(15.1)	51(8.1)	44(6.9)	191(30.1)	634(100)
	전문대졸	74(19.4)	68(18.0)	55(14.5)	197(51.9)	380(100)
	대졸	299(17.7)	335(19.9)	293(17.3)	928(54.9)	1,689(100)
	대학원졸	15(3.8)	48(12.5)	60(15.6)	122(31.9)	384(100)
	소계	484(15.7)	503(16.3)	452(14.6)	1,438(46.6)	3,087(100)
전 체	고졸 이하	1,744(12.4)	667(4.7)	643(4.6)	3,054(21.7)	14,055(100)
	전문대졸	768(19.5)	548(13.9)	499(12.7)	1,815(46.0)	3,941(100)
	대졸	1,331(14.7)	1,404(15.5)	1,283(14.2)	4,018(44.4)	9,043(100)
	대학원졸	56(4.0)	136(9.8)	177(12.9)	368(26.7)	1,377(100)
	합계	3,899(13.7)	2,754(9.7)	2,602(9.2)	9,256(32.6)	28,416(100)

*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취업자 대비 해당 연령대 취업자 비중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졸 이하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21.3%)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2.1%p 낮았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졸 이하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30.9%)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2.5%p 낮게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졸 이상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42.0%)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8.6%p 높았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이상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54.9%)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21.5%p 높게 나타났다.

〈표 4-5〉 청년 인구 비중 대비 고졸 이하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단위 : %)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인구 비중(A)		18.5	14.9		33.4	100.0
중소 기업	취업자 비중(B1)	12.3	4.6	4.5	21.3	100.0
	차이(B1-A)	△6.2p	△5.8p		△12.1p	-
대 기업	취업자 비중(B2)	15.1	8.1	6.9	30.9	100.0
	차이(B2-A)	△3.4p	0.1p		△2.5p	-
전체	취업자 비중(B3)	12.4	4.7	4.6	21.7p	100.0
	차이(B3-A)	△6.1p	△5.6p		△11.7p	-

* 주 1) 인구(취업자) 비중은 전체 인구(취업자) 대비 해당 연령대 인구(취업자) 비중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표 4-6〉 청년 인구 비중 대비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단위 : %)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인구 비중(A)		18.5	14.9		33.4	100.0
중소 기업	취업자 비중(B1)	14	14.5	13.5	42.0	100.0
	차이(B1-A)	△4.5p	13.1p		8.6p	-
대 기업	취업자 비중(B2)	17.7	19.9	17.3	54.9	100.0
	차이(B2-A)	△0.8p	22.3p		21.5p	-
전체	취업자 비중(B3)	14.7	15.5	14.2	44.4	100.0
	차이(B3-A)	△3.8p	14.8p		11.0p	-

* 주 1) 인구(취업자) 비중은 전체 인구(취업자) 대비 해당 연령대 인구(취업자) 비중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 업종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2023년 기준 제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33.5%)은 중소기업 서비스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34.0%) 대비 0.5%p 낮았지만, 30~39세 취업자 비중은 제조업(21.8%)이 서비스업(18.3%) 대비 3.5%p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 등 기타 업종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14.1%에 그쳐,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33.5%)과 서비스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34.0%) 대비 19.4%p, 19.9%p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33.5%)은 300인 이상 대기업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46.2%) 대비 12.7%p 낮았으며, 중소기업 서비스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34.0%)은 대기업 서비스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47.1%) 대비 13.1%p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타 업종 취업자 중 청년 비중(14.1%)은 대기업 기타 업종 취업자 중 청년 비중(41.5%) 대비 27.4%p 낮았다.

〈표 4-7〉 업종별 청년 취업자 현황(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중소 기업	제조업	416(11.7)	376(10.6)	396(11.2)	1,187(33.5)	3,541(100)
	서비스업	2,817(15.7)	1,720(9.6)	1,561(8.7)	6,098(34.0)	17,943(100)
	기타	182(4.8)	155(4.1)	194(5.2)	530(14.1)	3,762(100)
	소계	3,415(13.5)	2,251(8.9)	2,151(8.5)	7,817(30.9)	25,329(100)
대 기업	제조업	140(15.2)	139(15.1)	146(15.9)	425(46.2)	920(100)
	서비스업	325(15.9)	351(17.1)	289(14.1)	965(47.1)	2,048(100)
	기타	16(15.1)	13(11.8)	16(14.6)	45(41.5)	108(100)
	소계	484(15.7)	503(16.3)	452(14.6)	1,438(46.6)	3,087(100)
전체	제조업	555(12.5)	515(11.5)	542(12.1)	1,612(36.1)	4,461(100)
	서비스업	3,142(15.7)	2,071(10.4)	1,849(9.3)	7,063(35.3)	19,991(100)
	기타	198(5.1)	168(4.3)	210(5.4)	575(14.9)	3,870(100)
	합계	3,899(13.7)	2,754(9.7)	2,602(9.2)	9,256(32.6)	28,416(100)

*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취업자 대비 해당 연령대 취업자 비중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제조업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33.5%)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0.1%p 높았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제조업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46.2%)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2.8%p 높게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34.0%)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0.6%p 높았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서비스업 취업자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47.1%)이 동 연령대 인구 비중(33.4%) 대비 13.7%p 높게 나타났다.

〈표 4-8〉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단위 : %)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인구 비중(A)		18.5	14.9		33.4	100.0
중소 기업	취업자 비중(B1)	11.7	10.6	11.2	33.5	100.0
	차이(B1-A)	△6.8p	6.9p		0.1p	-
대 기업	취업자 비중(B2)	15.2	15.1	15.9	46.2	100.0
	차이(B2-A)	△3.3p	16.1p		12.8p	-
전체	취업자 비중(B3)	12.5	11.5	12.1	36.1	100.0
	차이(B3-A)	△6.0p	8.7p		2.7p	-

* 주 1) 인구(취업자) 비중은 전체 인구(취업자) 대비 해당 연령대 인구(취업자) 비중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표 4-9〉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차이(규모별, 2023)

(단위 : %)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인구 비중(A)		18.5	14.9		33.4	100.0
중소 기업	취업자 비중(B1)	15.7	9.6	8.7	34.0	100.0
	차이(B1-A)	△2.8p	3.4p		0.6p	-
대 기업	취업자 비중(B2)	15.9	17.1	14.1	47.1	100.0
	차이(B2-A)	△2.6p	16.3p		13.7p	-
전체	취업자 비중(B3)	15.7	10.4	9.3	35.3	100.0
	차이(B3-A)	△2.8p	4.8p		1.9p	-

* 주 1) 인구(취업자) 비중은 전체 인구(취업자) 대비 해당 연령대 인구(취업자) 비중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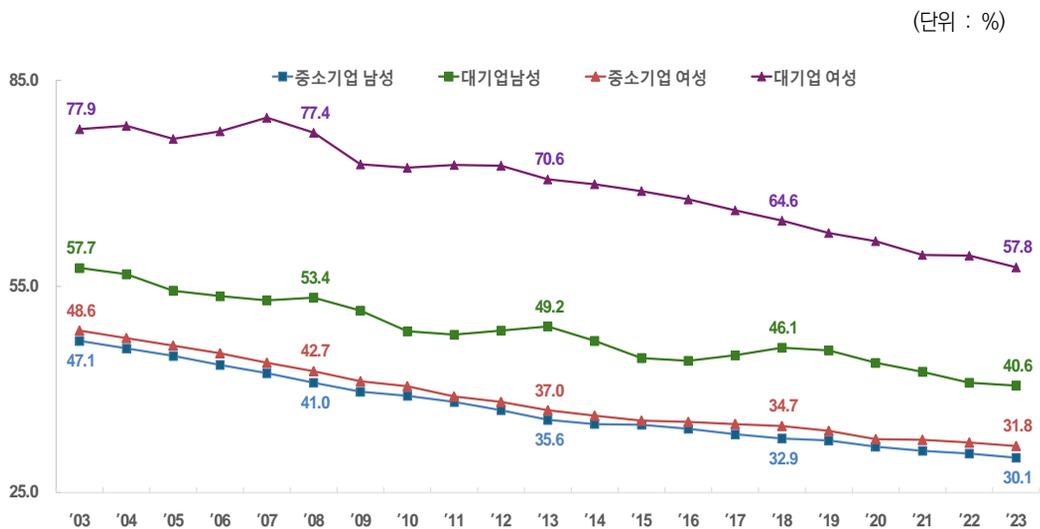
1) 전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남성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0.1%로 300인 이상 대기업(40.6%) 대비 10.5%p 낮게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남성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47.1%(’03)에서 30.1%(’23)로 17.0%p 줄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57.7%(’03)에서 40.6%(’23)로 17.1%p 감소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1.8%로 300인 이상 대기업(57.8%) 대비 26.0%p 낮게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여성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48.6%(’03)에서 31.8%(’23)로 16.8%p 줄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77.9%(’03)에서 57.8%(’23)로 20.1%p 감소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23년 기준 남성 취업자 중 청년 비중(30.1%)이 여성 취업자 중 청년 비중(31.8%) 대비 1.7%p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 취업자와 여성 취업자 간 청년 비중 차이는 1.5%p(’03)에서 1.7%p(’23)로 0.2%p 커졌다.

[그림 4-1] 성별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2003~2023)



* 주: 청년은 39세 이하를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남성

중소기업 남성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2023년 기준 4,196천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남성 취업자(13,942천 명)의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47.1%(’03)에서 30.1%(’23)로 17.0%p 감소했다. 중소기업 남성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17.6%(’03)에서 11.7%(’23)로 5.9%p, 30~34세 비중은 15.0%(’03)에서 9.3%(’23)로 5.7%p, 35~39세 비중은 14.6%(’03)에서 9.1%(’23)로 5.5%p 감소했다.

〈표 4-10〉 남성의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중소기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2003	2,063(17.6)	1,760(15.0)	1,713(14.6)	5,536(47.1)	11,752(100)
2004	2,015(16.9)	1,751(14.7)	1,718(14.4)	5,484(46.0)	11,933(100)
2005	1,918(16.1)	1,720(14.4)	1,727(14.5)	5,365(44.9)	11,938(100)
2006	1,845(15.2)	1,665(13.8)	1,765(14.6)	5,275(43.6)	12,104(100)
2007	1,829(14.8)	1,605(13.0)	1,800(14.6)	5,234(42.4)	12,360(100)
2008	1,739(13.9)	1,559(12.5)	1,817(14.6)	5,115(41.0)	12,465(100)
2009	1,701(13.7)	1,465(11.8)	1,754(14.2)	4,920(39.7)	12,377(100)
2010	1,693(13.4)	1,478(11.7)	1,777(14.1)	4,947(39.1)	12,638(100)
2011	1,683(13.0)	1,510(11.7)	1,734(13.4)	4,926(38.2)	12,905(100)
2012	1,642(12.6)	1,544(11.8)	1,642(12.6)	4,828(37.0)	13,064(100)
2013	1,601(12.2)	1,510(11.5)	1,568(11.9)	4,679(35.6)	13,157(100)
2014	1,612(12.0)	1,541(11.5)	1,527(11.4)	4,681(35.0)	13,388(100)
2015	1,643(12.2)	1,499(11.2)	1,545(11.5)	4,687(34.9)	13,448(100)
2016	1,675(12.4)	1,408(10.4)	1,550(11.5)	4,632(34.3)	13,497(100)
2017	1,666(12.2)	1,329(9.7)	1,575(11.6)	4,569(33.5)	13,632(100)
2018	1,652(12.1)	1,258(9.2)	1,564(11.5)	4,474(32.9)	13,619(100)
2019	1,717(12.6)	1,212(8.9)	1,526(11.2)	4,455(32.6)	13,652(100)
2020	1,621(12.0)	1,220(9.0)	1,461(10.8)	4,302(31.7)	13,565(100)
2021	1,613(11.8)	1,239(9.1)	1,397(10.2)	4,249(31.1)	13,653(100)
2022	1,672(12.0)	1,277(9.2)	1,333(9.6)	4,283(30.7)	13,952(100)
2023	1,624(11.7)	1,299(9.3)	1,272(9.1)	4,196(30.1)	13,942(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중소기업 남성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11.7%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8%) 대비 7.1%p 낮았으며, 30~39세 비중은 18.4%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5.9%) 대비 2.5%p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남성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10.0%p('03)에서 -7.1%p('23)로 2.9%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5.4%p('03)에서 2.5%p('23)로 2.9%p 악화되었다.

〈표 4-11〉 남성의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2003~2023)

(단위 : %)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2003	27.6	17.6	△10.0p	24.1	29.5	5.4p
2004	26.7	16.9	△9.8p	23.9	29.1	5.2p
2005	26.0	16.1	△9.9p	23.6	28.9	5.3p
2006	25.6	15.2	△10.4p	23.1	28.3	5.2p
2007	25.2	14.8	△10.4p	22.7	27.6	4.9p
2008	24.9	13.9	△11.0p	22.1	27.1	5.0p
2009	24.5	13.7	△10.8p	21.5	26.0	4.5p
2010	24.0	13.4	△10.6p	21.1	25.8	4.7p
2011	23.6	13.0	△10.6p	20.6	25.1	4.5p
2012	23.1	12.6	△10.5p	20.2	24.4	4.2p
2013	22.6	12.2	△10.4p	19.7	23.4	3.7p
2014	22.3	12.0	△10.3p	19.2	22.9	3.7p
2015	22.0	12.2	△9.8p	18.7	22.6	3.9p
2016	21.8	12.4	△9.4p	18.3	21.9	3.6p
2017	21.5	12.2	△9.3p	17.9	21.3	3.4p
2018	21.0	12.1	△8.9p	17.6	20.7	3.1p
2019	20.7	12.6	△8.1p	17.3	20.1	2.8p
2020	20.2	12.0	△8.2p	16.9	19.8	2.9p
2021	19.8	11.8	△8.0p	16.4	19.3	2.9p
2022	19.2	12.0	△7.2p	16.1	18.7	2.6p
2023	18.8	11.7	△7.1p	15.9	18.4	2.5p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여성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2023년 기준 3,621천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11,386천 명)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48.6%(’03)에서 31.8%(’23)로 16.8%p 감소했다.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4.5%(’03)에서 15.7%(’23)로 8.8%p, 30~34세 비중은 11.3%(’03)에서 8.4%(’23)로 2.9%p, 35~39세 비중은 12.7%(’03)에서 7.7%(’23)로 5.0%p 감소했다.

〈표 4-12〉 여성의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중소기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2003	2,127(24.5)	982(11.3)	1,106(12.7)	4,215(48.6)	8,676(100)
2004	2,124(23.8)	985(11.0)	1,126(12.6)	4,235(47.5)	8,920(100)
2005	2,083(23.2)	951(10.6)	1,138(12.7)	4,172(46.4)	8,984(100)
2006	2,024(22.0)	966(10.5)	1,174(12.8)	4,163(45.3)	9,183(100)
2007	1,997(21.4)	935(10.0)	1,168(12.5)	4,100(43.9)	9,343(100)
2008	1,954(20.7)	896(9.5)	1,175(12.5)	4,025(42.7)	9,423(100)
2009	1,871(20.1)	851(9.1)	1,113(12.0)	3,835(41.2)	9,306(100)
2010	1,839(19.5)	898(9.5)	1,078(11.4)	3,815(40.5)	9,428(100)
2011	1,802(18.8)	913(9.5)	1,036(10.8)	3,752(39.0)	9,611(100)
2012	1,796(18.3)	955(9.7)	999(10.2)	3,750(38.2)	9,820(100)
2013	1,746(17.5)	978(9.8)	966(9.7)	3,690(37.0)	9,961(100)
2014	1,774(17.4)	972(9.5)	948(9.3)	3,694(36.2)	10,203(100)
2015	1,799(17.4)	956(9.2)	922(8.9)	3,677(35.5)	10,342(100)
2016	1,810(17.3)	911(8.7)	960(9.2)	3,681(35.3)	10,436(100)
2017	1,831(17.2)	867(8.2)	1,014(9.6)	3,712(35.0)	10,619(100)
2018	1,816(17.0)	848(7.9)	1,042(9.8)	3,705(34.7)	10,680(100)
2019	1,809(16.6)	852(7.8)	1,039(9.6)	3,700(34.0)	10,876(100)
2020	1,698(15.9)	844(7.9)	959(9.0)	3,501(32.8)	10,666(100)
2021	1,788(16.5)	861(8.0)	880(8.1)	3,529(32.7)	10,804(100)
2022	1,837(16.5)	900(8.1)	864(7.8)	3,600(32.3)	11,139(100)
2023	1,791(15.7)	952(8.4)	878(7.7)	3,621(31.8)	11,386(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15.7%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2%) 대비 2.5%p 낮았으며, 30~39세 비중은 16.1%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0%) 대비 2.1%p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3.5%p('03)에서 -2.5%p('23)로 1.0%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2.3%p('03)에서 2.1%p('23)로 0.2%p 악화되었다.

〈표 4-13〉 여성의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2003~2023)

(단위 : %)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2003	28.0	24.5	△3.5p	21.8	24.1	2.3p
2004	27.1	23.8	△3.3p	21.7	23.7	2.0p
2005	26.3	23.2	△3.1p	21.5	23.2	1.7p
2006	25.7	22.0	△3.7p	21.1	23.3	2.2p
2007	25.2	21.4	△3.8p	20.7	22.5	1.8p
2008	24.7	20.7	△4.0p	20.2	22.0	1.8p
2009	24.3	20.1	△4.2p	19.6	21.1	1.5p
2010	23.7	19.5	△4.2p	19.2	21.0	1.8p
2011	23.1	18.8	△4.3p	18.8	20.3	1.5p
2012	22.5	18.3	△4.2p	18.5	19.9	1.4p
2013	22.0	17.5	△4.5p	18.0	19.5	1.5p
2014	21.6	17.4	△4.2p	17.5	18.8	1.3p
2015	21.4	17.4	△4.0p	17.0	18.2	1.2p
2016	21.1	17.3	△3.8p	16.6	17.9	1.3p
2017	20.8	17.2	△3.6p	16.2	17.7	1.5p
2018	20.4	17.0	△3.4p	15.8	17.7	1.9p
2019	20.0	16.6	△3.4p	15.5	17.4	1.9p
2020	19.6	15.9	△3.7p	15.0	16.9	1.9p
2021	19.1	16.5	△2.6p	14.6	16.1	1.5p
2022	18.6	16.5	△2.1p	14.2	15.8	1.6p
2023	18.2	15.7	△2.5p	14.0	16.1	2.1p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 교육 정도별

1)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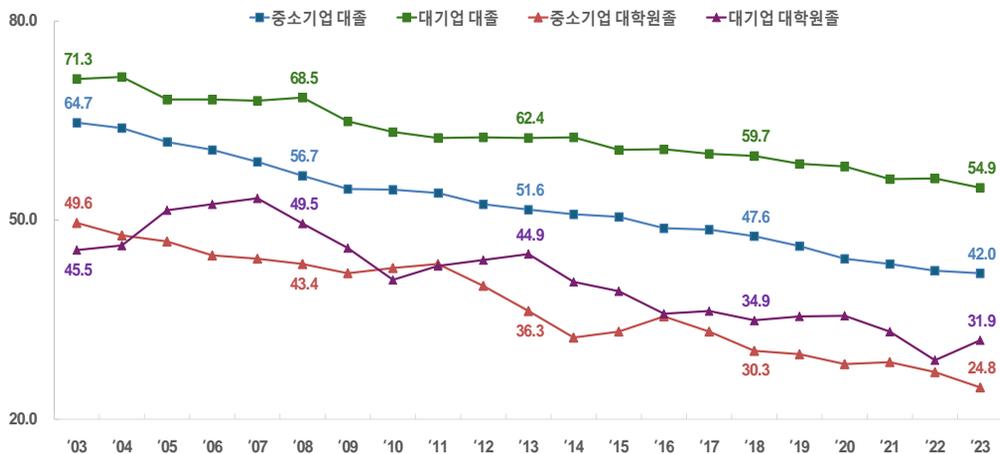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졸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42.0%로 300인 이상 대기업(54.9%) 대비 12.9%p 낮게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대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64.7%('03)에서 42.0%('23)로 22.7%p 줄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71.3%('03)에서 54.9%('23)로 16.4%p 감소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학원졸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24.8%로 300인 이상 대기업(31.9%) 대비 7.1%p 낮게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대학원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49.6%('03)에서 24.8%('23)로 24.8%p 줄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45.5%('03)에서 31.9%('23)로 13.6%p 감소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23년 기준 대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42.0%)이 대학원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24.8%) 대비 17.2%p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취업자와 대학원졸 취업자 간 청년 비중 차이는 15.1%p('03)에서 17.2%p('23)로 2.1%p 커졌다.

[그림 4-2] 교육 정도별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2003~2023)

(단위 : %)



* 주: 청년은 39세 이하를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고졸 이하

중소기업 고졸 이하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2023년 기준 2,863천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고졸 이하 취업자(13,420천 명)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39.1%(’03)에서 21.3%(’23)로 17.8%p 감소했다. 중소기업 고졸 이하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16.6%(’03)에서 12.3%(’23)로 4.3%p, 30~34세 비중은 10.5%(’03)에서 4.6%(’23)로 5.9%p, 35~39세 비중은 12.1%(’03)에서 4.5%(’23)로 7.6%p 감소했다.

〈표 4-14〉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고졸 이하,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2003	2,437(16.6)	1,539(10.5)	1,780(12.1)	5,756(39.1)	14,706(100)
2004	2,292(15.5)	1,473(9.9)	1,782(12.0)	5,547(37.4)	14,825(100)
2005	2,154(14.8)	1,354(9.3)	1,751(12.0)	5,259(36.0)	14,598(100)
2006	1,972(13.5)	1,294(8.9)	1,731(11.9)	4,997(34.3)	14,579(100)
2007	1,854(12.7)	1,202(8.3)	1,686(11.6)	4,742(32.6)	14,564(100)
2008	1,749(12.2)	1,072(7.5)	1,649(11.5)	4,470(31.1)	14,369(100)
2009	1,653(11.8)	906(6.5)	1,544(11.0)	4,103(29.4)	13,979(100)
2010	1,659(11.8)	884(6.3)	1,405(10.0)	3,948(28.1)	14,058(100)
2011	1,615(11.4)	873(6.2)	1,246(8.8)	3,734(26.4)	14,122(100)
2012	1,568(11.1)	857(6.1)	1,119(7.9)	3,544(25.1)	14,111(100)
2013	1,495(10.7)	798(5.7)	1,012(7.2)	3,306(23.6)	14,032(100)
2014	1,567(11.1)	784(5.6)	919(6.5)	3,270(23.1)	14,124(100)
2015	1,588(11.3)	746(5.3)	892(6.3)	3,226(22.9)	14,063(100)
2016	1,626(11.6)	666(4.8)	905(6.5)	3,198(22.9)	13,965(100)
2017	1,619(11.6)	620(4.5)	874(6.3)	3,113(22.3)	13,941(100)
2018	1,606(11.7)	582(4.3)	841(6.1)	3,029(22.1)	13,683(100)
2019	1,652(12.1)	575(4.2)	795(5.8)	3,022(22.1)	13,664(100)
2020	1,566(11.7)	566(4.2)	771(5.8)	2,903(21.7)	13,384(100)
2021	1,636(12.2)	570(4.3)	693(5.2)	2,899(21.7)	13,367(100)
2022	1,698(12.5)	574(4.2)	654(4.8)	2,925(21.6)	13,566(100)
2023	1,648(12.3)	615(4.6)	599(4.5)	2,863(21.3)	13,420(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중소기업 고졸 이하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12.3%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5%) 대비 6.2%p 낮았으며, 30~39세 비중은 9.1%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9%) 대비 5.8%p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졸 이하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11.2%p('03)에서 -6.2%p('23)로 5.0%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0.3%p('03)에서 -5.8%p('23)로 5.5%p 악화되었다.

〈표 4-15〉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차이(고졸 이하, 2003~2023)

(단위 : %)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2003	27.8	16.6	△11.2p	22.9	22.6	△0.3p
2004	26.9	15.5	△11.4p	22.8	22.0	△0.8p
2005	26.1	14.8	△11.3p	22.5	21.3	△1.2p
2006	25.6	13.5	△12.1p	22.1	20.8	△1.3p
2007	25.2	12.7	△12.5p	21.6	19.8	△1.8p
2008	24.8	12.2	△12.6p	21.1	18.9	△2.2p
2009	24.4	11.8	△12.6p	20.6	17.5	△3.1p
2010	23.8	11.8	△12.0p	20.1	16.3	△3.8p
2011	23.3	11.4	△11.9p	19.7	15.0	△4.7p
2012	22.8	11.1	△11.7p	19.3	14.0	△5.3p
2013	22.3	10.7	△11.6p	18.8	12.9	△5.9p
2014	22.0	11.1	△10.9p	18.3	12.1	△6.2p
2015	21.7	11.3	△10.4p	17.8	11.6	△6.2p
2016	21.5	11.6	△9.9p	17.4	11.3	△6.1p
2017	21.1	11.6	△9.5p	17.1	10.7	△6.4p
2018	20.7	11.7	△9.0p	16.7	10.4	△6.3p
2019	20.4	12.1	△8.3p	16.3	10.0	△6.3p
2020	19.9	11.7	△8.2p	15.9	10.0	△5.9p
2021	19.5	12.2	△7.3p	15.5	9.4	△6.1p
2022	18.9	12.5	△6.4p	15.2	9.0	△6.2p
2023	18.5	12.3	△6.2p	14.9	9.1	△5.8p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에서 인구 비중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전문대졸

중소기업 전문대졸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2023년 기준 1,618천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전문대졸 취업자(3,561천 명)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85.0%('03)에서 45.4%('23)로 39.6%p 감소했다. 중소기업 전문대졸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51.3%('03)에서 19.5%('23)로 31.8%p, 30~34세 비중은 20.8%('03)에서 13.5%('23)로 7.3%p, 35~39세 비중은 12.9%('03)에서 12.5%('23)로 0.4%p 감소했다.

〈표 4-16〉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전문대졸,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2003	909(51.3)	368(20.8)	229(12.9)	1,507(85.0)	1,773(100)
2004	964(49.8)	412(21.3)	259(13.4)	1,635(84.4)	1,937(100)
2005	980(47.6)	445(21.6)	291(14.1)	1,716(83.3)	2,060(100)
2006	994(45.6)	438(20.1)	345(15.8)	1,778(81.6)	2,179(100)
2007	1,055(44.6)	443(18.7)	365(15.4)	1,862(78.8)	2,363(100)
2008	986(39.9)	519(21.0)	386(15.6)	1,891(76.5)	2,473(100)
2009	969(38.1)	545(21.4)	392(15.4)	1,906(74.9)	2,543(100)
2010	940(35.3)	569(21.4)	463(17.4)	1,972(74.1)	2,661(100)
2011	903(32.1)	593(21.1)	500(17.8)	1,996(71.0)	2,812(100)
2012	920(30.4)	654(21.6)	539(17.8)	2,113(69.8)	3,029(100)
2013	894(28.6)	645(20.7)	560(17.9)	2,098(67.2)	3,119(100)
2014	842(27.2)	624(20.2)	540(17.5)	2,005(64.9)	3,090(100)
2015	807(26.3)	582(19.0)	523(17.1)	1,911(62.4)	3,064(100)
2016	794(25.5)	555(17.9)	533(17.1)	1,881(60.5)	3,110(100)
2017	770(24.0)	497(15.5)	585(18.3)	1,853(57.8)	3,205(100)
2018	760(23.5)	466(14.4)	573(17.7)	1,800(55.6)	3,239(100)
2019	771(23.4)	442(13.4)	581(17.6)	1,793(54.4)	3,296(100)
2020	722(22.3)	440(13.6)	522(16.1)	1,684(52.0)	3,240(100)
2021	720(21.8)	438(13.3)	473(14.3)	1,631(49.5)	3,298(100)
2022	734(21.2)	468(13.5)	482(13.9)	1,684(48.6)	3,463(100)
2023	695(19.5)	479(13.5)	443(12.5)	1,618(45.4)	3,561(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중소기업 전문대졸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19.5%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5%) 대비 1.0%p 높았으며, 30~39세 비중은 26.0%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9%) 대비 11.1%p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문대졸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23.5%p('03)에서 1.0%p('23)로 22.5%p 악화되었으며, 30~39세는 10.8%p('03)에서 11.1%p('23)로 0.3%p 개선되었다.

〈표 4-17〉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차이(전문대졸,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2003	27.8	51.3	23.5p	22.9	33.7	10.8p
2004	26.9	49.8	22.9p	22.8	34.7	11.9p
2005	26.1	47.6	21.5p	22.5	35.7	13.2p
2006	25.6	45.6	20.0p	22.1	35.9	13.8p
2007	25.2	44.6	19.4p	21.6	34.1	12.5p
2008	24.8	39.9	15.1p	21.1	36.6	15.5p
2009	24.4	38.1	13.7p	20.6	36.8	16.2p
2010	23.8	35.3	11.5p	20.1	38.8	18.7p
2011	23.3	32.1	8.8p	19.7	38.9	19.2p
2012	22.8	30.4	7.6p	19.3	39.4	20.1p
2013	22.3	28.6	6.3p	18.8	38.6	19.8p
2014	22.0	27.2	5.2p	18.3	37.7	19.4p
2015	21.7	26.3	4.6p	17.8	36.1	18.3p
2016	21.5	25.5	4.0p	17.4	35.0	17.6p
2017	21.1	24.0	2.9p	17.1	33.8	16.7p
2018	20.7	23.5	2.8p	16.7	32.1	15.4p
2019	20.4	23.4	3.0p	16.3	31.0	14.7p
2020	19.9	22.3	2.4p	15.9	29.7	13.8p
2021	19.5	21.8	2.3p	15.5	27.6	12.1p
2022	18.9	21.2	2.3p	15.2	27.4	12.2p
2023	18.5	19.5	1.0p	14.9	26.0	11.1p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에서 인구 비중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 대졸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2023년 기준 3,091천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7,354천 명)의 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64.7%(’03)에서 42.0%(’23)로 22.7%p 감소했다.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3.0%(’03)에서 14.0%(’23)로 9.5%p, 30~34세 비중은 21.2%(’03)에서 14.5%(’23)로 6.7%p, 35~39세 비중은 20.5%(’03)에서 13.5%(’23)로 7.0%p 감소했다.

〈표 4-18〉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대졸,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2003	807(23.0)	746(21.2)	719(20.5)	2,272(64.7)	3,514(100)
2004	841(23.2)	754(20.8)	717(19.8)	2,312(63.9)	3,620(100)
2005	830(22.0)	774(20.5)	729(19.3)	2,333(61.8)	3,775(100)
2006	868(21.7)	792(19.8)	771(19.2)	2,432(60.6)	4,010(100)
2007	877(20.7)	805(19.0)	809(19.1)	2,491(58.8)	4,235(100)
2008	919(20.7)	766(17.3)	829(18.7)	2,514(56.7)	4,437(100)
2009	914(20.1)	767(16.9)	803(17.7)	2,483(54.7)	4,537(100)
2010	899(19.1)	830(17.6)	840(17.8)	2,569(54.6)	4,708(100)
2011	932(18.9)	873(17.7)	855(17.4)	2,660(54.1)	4,919(100)
2012	918(18.2)	893(17.7)	827(16.4)	2,638(52.4)	5,039(100)
2013	920(17.6)	955(18.2)	825(15.8)	2,700(51.6)	5,237(100)
2014	942(16.8)	1,010(18.0)	898(16.0)	2,850(50.9)	5,604(100)
2015	1,014(17.3)	1,022(17.4)	928(15.8)	2,965(50.5)	5,875(100)
2016	1,028(17.1)	981(16.3)	927(15.4)	2,935(48.8)	6,017(100)
2017	1,074(17.3)	974(15.7)	973(15.6)	3,020(48.6)	6,216(100)
2018	1,064(16.5)	969(15.1)	1,034(16.1)	3,067(47.6)	6,439(100)
2019	1,071(16.1)	954(14.4)	1,036(15.6)	3,061(46.1)	6,635(100)
2020	999(14.9)	960(14.3)	1,000(14.9)	2,960(44.2)	6,704(100)
2021	998(14.5)	1,003(14.5)	990(14.4)	2,990(43.4)	6,892(100)
2022	1,034(14.5)	1,042(14.6)	945(13.3)	3,021(42.4)	7,132(100)
2023	1,031(14.0)	1,069(14.5)	990(13.5)	3,091(42.0)	7,354(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14.0%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5%) 대비 4.5%p 낮았으며, 30~39세 비중은 28.0%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9%) 대비 13.1%p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4.8%p('03)에서 -4.5%p('23)로 0.3%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18.8%p('03)에서 13.1%p('23)로 5.7%p 악화되었다.

〈표 4-19〉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차이(대졸,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2003	27.8	23.0	△4.8p	22.9	41.7	18.8p
2004	26.9	23.2	△3.7p	22.8	40.6	17.8p
2005	26.1	22.0	△4.1p	22.5	39.8	17.3p
2006	25.6	21.7	△3.9p	22.1	39.0	16.9p
2007	25.2	20.7	△4.5p	21.6	38.1	16.5p
2008	24.8	20.7	△4.1p	21.1	36.0	14.9p
2009	24.4	20.1	△4.3p	20.6	34.6	14.0p
2010	23.8	19.1	△4.7p	20.1	35.4	15.3p
2011	23.3	18.9	△4.4p	19.7	35.1	15.4p
2012	22.8	18.2	△4.6p	19.3	34.1	14.8p
2013	22.3	17.6	△4.7p	18.8	34.0	15.2p
2014	22.0	16.8	△5.2p	18.3	34.0	15.7p
2015	21.7	17.3	△4.4p	17.8	33.2	15.4p
2016	21.5	17.1	△4.4p	17.4	31.7	14.3p
2017	21.1	17.3	△3.8p	17.1	31.3	14.2p
2018	20.7	16.5	△4.2p	16.7	31.2	14.5p
2019	20.4	16.1	△4.3p	16.3	30.0	13.7p
2020	19.9	14.9	△5.0p	15.9	29.2	13.3p
2021	19.5	14.5	△5.0p	15.5	28.9	13.4p
2022	18.9	14.5	△4.4p	15.2	27.9	12.7p
2023	18.5	14.0	△4.5p	14.9	28.0	13.1p

* 주: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에서 인구 비중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4) 대학원졸

중소기업 대학원졸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2023년 기준 246천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학원졸 취업자(993천 명)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49.6%(’03)에서 24.8%(’23)로 24.8%p 감소했다. 중소기업 대학원졸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8.8%(’03)에서 4.1%(’23)로 4.7%p, 30~34세 비중은 20.2%(’03)에서 8.8%(’23)로 11.4%p, 35~39세 비중은 20.7%(’03)에서 11.8%(’23)로 8.9%p 감소했다.

〈표 4-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대학원졸,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2003	38(8.8)	88(20.2)	90(20.7)	216(49.6)	435(100)
2004	41(8.7)	96(20.5)	87(18.5)	224(47.7)	470(100)
2005	37(7.6)	98(20.0)	94(19.2)	228(46.8)	488(100)
2006	34(6.6)	106(20.5)	91(17.6)	232(44.7)	520(100)
2007	40(7.3)	90(16.7)	109(20.1)	239(44.2)	541(100)
2008	38(6.3)	98(16.0)	128(21.1)	265(43.4)	609(100)
2009	37(5.9)	97(15.6)	129(20.6)	263(42.0)	625(100)
2010	34(5.4)	92(14.4)	147(23.0)	273(42.8)	639(100)
2011	35(5.2)	85(12.8)	169(25.4)	288(43.4)	663(100)
2012	33(4.7)	94(13.3)	156(22.1)	283(40.1)	704(100)
2013	39(5.3)	90(12.3)	137(18.7)	265(36.3)	729(100)
2014	35(4.6)	95(12.3)	120(15.5)	250(32.3)	775(100)
2015	33(4.1)	105(13.3)	123(15.7)	261(33.2)	788(100)
2016	37(4.3)	116(13.8)	146(17.3)	298(35.5)	841(100)
2017	33(3.7)	105(11.8)	157(17.7)	295(33.2)	889(100)
2018	38(4.0)	88(9.4)	158(16.8)	284(30.3)	938(100)
2019	33(3.5)	92(9.9)	153(16.4)	278(29.8)	934(100)
2020	32(3.5)	97(10.8)	127(14.0)	256(28.3)	904(100)
2021	46(5.1)	90(10.0)	121(13.5)	257(28.6)	899(100)
2022	43(4.7)	93(10.0)	115(12.4)	252(27.1)	930(100)
2023	41(4.1)	88(8.8)	117(11.8)	246(24.8)	993(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중소기업 대학원졸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4.1%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5%) 대비 14.4%p 낮았으며, 30~39세 비중은 20.6%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9%) 대비 5.7%p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학원졸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19.0%p('03)에서 -14.4%p('23)로 4.6%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18.0%p('03)에서 5.7%p('23)로 12.3%p 악화되었다.

〈표 4-21〉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차이(대학원졸,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2003	27.8	8.8	△19.0p	22.9	40.9	18.0p
2004	26.9	8.7	△18.2p	22.8	39.0	16.2p
2005	26.1	7.6	△18.5p	22.5	39.2	16.7p
2006	25.6	6.6	△19.0p	22.1	38.1	16.0p
2007	25.2	7.3	△17.9p	21.6	36.8	15.2p
2008	24.8	6.3	△18.5p	21.1	37.1	16.0p
2009	24.4	5.9	△18.5p	20.6	36.2	15.6p
2010	23.8	5.4	△18.4p	20.1	37.4	17.3p
2011	23.3	5.2	△18.1p	19.7	38.2	18.5p
2012	22.8	4.7	△18.1p	19.3	35.4	16.1p
2013	22.3	5.3	△17.0p	18.8	31.0	12.2p
2014	22.0	4.6	△17.4p	18.3	27.8	9.5p
2015	21.7	4.1	△17.6p	17.8	29.0	11.2p
2016	21.5	4.3	△17.2p	17.4	31.1	13.7p
2017	21.1	3.7	△17.4p	17.1	29.5	12.4p
2018	20.7	4.0	△16.7p	16.7	26.2	9.5p
2019	20.4	3.5	△16.9p	16.3	26.3	10.0p
2020	19.9	3.5	△16.4p	15.9	24.8	8.9p
2021	19.5	5.1	△14.4p	15.5	23.5	8.0p
2022	18.9	4.7	△14.2p	15.2	22.4	7.2p
2023	18.5	4.1	△14.4p	14.9	20.6	5.7p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에서 인구 비중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4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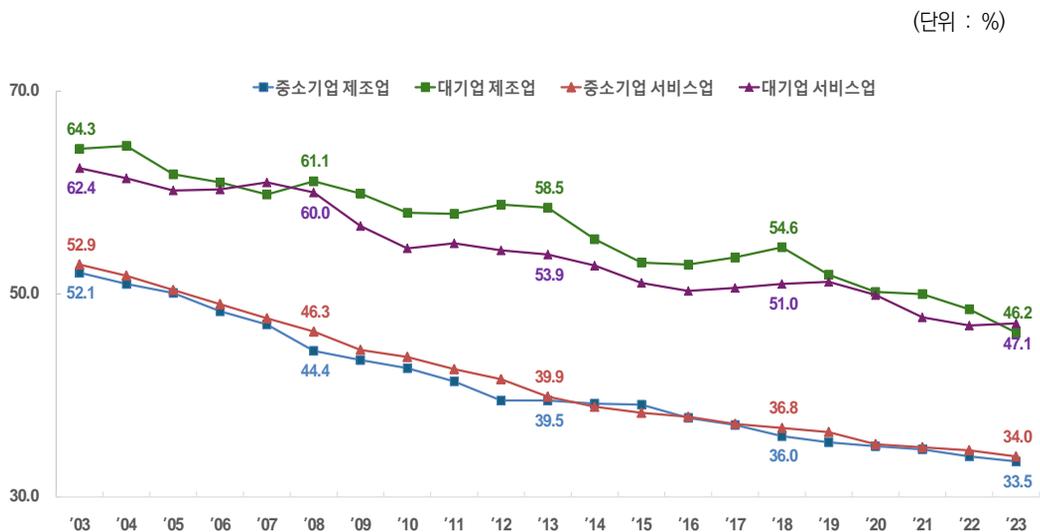
1) 전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제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3.5%로 300인 이상 대기업(46.2%) 대비 12.7%p 낮게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52.1%('03)에서 33.5%('23)로 18.6%p 줄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64.3%('03)에서 46.2%('23)로 18.1%p 감소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4.0%로 300인 이상 대기업(47.1%) 대비 13.1%p 낮게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서비스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52.9%('03)에서 34.0%('23)로 18.9%p 줄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62.4%('03)에서 47.1%('23)로 15.3%p 감소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23년 기준 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33.5%)이 서비스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34.0%) 대비 0.5%p 낮게 나타났으며, 제조업 취업자와 서비스업 취업자 간 청년 비중 차이는 0.8%p('03)에서 0.5%p('23)로 0.3%p 감소했다.

[그림 4-3] 업종별 청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2003~2023)



* 주: 청년은 39세 이하를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제조업

중소기업 제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2023년 기준 1,187천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조업 취업자(3,541천 명)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52.1%(’03)에서 33.5%(’23)로 18.6%p 감소했다. 중소기업 제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1.0%(’03)에서 11.7%(’23)로 9.3%p, 30~34세 비중은 14.9%(’03)에서 10.6%(’23)로 4.3%p, 35~39세 비중은 16.2%(’03)에서 11.2%(’23)로 5.0%p 감소했다.

〈표 4-22〉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제조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2003	729(21.0)	519(14.9)	563(16.2)	1,810(52.1)	3,475(100)
2004	711(20.6)	482(14.0)	567(16.4)	1,759(51.0)	3,447(100)
2005	672(20.0)	466(13.9)	541(16.1)	1,678(50.1)	3,351(100)
2006	610(18.5)	451(13.6)	537(16.2)	1,598(48.3)	3,308(100)
2007	586(17.7)	433(13.1)	538(16.2)	1,557(47.0)	3,314(100)
2008	532(16.0)	427(12.9)	514(15.5)	1,473(44.4)	3,319(100)
2009	511(15.7)	417(12.8)	484(14.9)	1,413(43.5)	3,249(100)
2010	545(15.7)	433(12.5)	502(14.5)	1,480(42.7)	3,465(100)
2011	534(15.0)	448(12.6)	490(13.8)	1,472(41.4)	3,551(100)
2012	485(13.8)	464(13.2)	438(12.5)	1,387(39.5)	3,509(100)
2013	464(12.9)	509(14.1)	453(12.6)	1,426(39.5)	3,606(100)
2014	487(13.2)	496(13.4)	463(12.6)	1,446(39.2)	3,690(100)
2015	521(13.8)	489(12.9)	468(12.4)	1,477(39.1)	3,776(100)
2016	521(13.9)	426(11.4)	466(12.5)	1,413(37.8)	3,737(100)
2017	517(13.9)	403(10.8)	462(12.4)	1,382(37.1)	3,727(100)
2018	478(13.1)	386(10.6)	453(12.4)	1,317(36.0)	3,658(100)
2019	446(12.4)	373(10.4)	455(12.7)	1,274(35.4)	3,596(100)
2020	428(12.1)	365(10.3)	449(12.7)	1,243(35.0)	3,546(100)
2021	440(12.6)	379(10.8)	398(11.4)	1,216(34.7)	3,502(100)
2022	436(12.2)	389(10.9)	391(10.9)	1,217(34.0)	3,581(100)
2023	416(11.7)	376(10.6)	396(11.2)	1,187(33.5)	3,541(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중소기업 제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11.7%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5%) 대비 6.8%p 낮았으며, 30~39세 비중은 21.8%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9%) 대비 6.9%p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조업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6.8%로 최근 20년간 변화가 없으며, 30~39세는 8.2%p('03)에서 6.9%p('23)로 1.3%p 악화되었다.

〈표 4-23〉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제조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2003	27.8	21.0	△6.8p	22.9	31.1	8.2p
2004	26.9	20.6	△6.3p	22.8	30.4	7.6p
2005	26.1	20.0	△6.1p	22.5	30.0	7.5p
2006	25.6	18.5	△7.1p	22.1	29.8	7.7p
2007	25.2	17.7	△7.5p	21.6	29.3	7.7p
2008	24.8	16.0	△8.8p	21.1	28.4	7.3p
2009	24.4	15.7	△8.7p	20.6	27.7	7.1p
2010	23.8	15.7	△8.1p	20.1	27.0	6.9p
2011	23.3	15.0	△8.3p	19.7	26.4	6.7p
2012	22.8	13.8	△9.0p	19.3	25.7	6.4p
2013	22.3	12.9	△9.4p	18.8	26.7	7.9p
2014	22.0	13.2	△8.8p	18.3	26.0	7.7p
2015	21.7	13.8	△7.9p	17.8	25.3	7.5p
2016	21.5	13.9	△7.6p	17.4	23.9	6.5p
2017	21.1	13.9	△7.2p	17.1	23.2	6.1p
2018	20.7	13.1	△7.6p	16.7	23.0	6.3p
2019	20.4	12.4	△8.0p	16.3	23.1	6.8p
2020	19.9	12.1	△7.8p	15.9	23.0	7.1p
2021	19.5	12.6	△6.9p	15.5	22.2	6.7p
2022	18.9	12.2	△6.7p	15.2	21.8	6.6p
2023	18.5	11.7	△6.8p	14.9	21.8	6.9p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에서 인구 비중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3) 서비스업

중소기업 서비스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2023년 기준 6,098천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서비스업 취업자(17,943천 명)의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52.9%('03)에서 34.0%('23)로 18.9%p 감소했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4.0%('03)에서 15.7%('23)로 8.3%p, 30~34세 비중은 14.6%('03)에서 9.6%('23)로 5.0%p, 35~39세 비중은 14.3%('03)에서 8.7%('23)로 5.6%p 감소했다.

〈표 4-24〉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서비스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2003	3,149(24.0)	1,916(14.6)	1,874(14.3)	6,940(52.9)	13,110(100)
2004	3,139(23.3)	1,941(14.4)	1,896(14.1)	6,976(51.8)	13,455(100)
2005	3,050(22.2)	1,914(14.0)	1,948(14.2)	6,912(50.4)	13,713(100)
2006	2,993(21.2)	1,898(13.4)	2,032(14.4)	6,924(49.0)	14,132(100)
2007	3,014(20.7)	1,835(12.6)	2,064(14.2)	6,914(47.6)	14,539(100)
2008	2,950(20.0)	1,766(11.9)	2,130(14.4)	6,846(46.3)	14,780(100)
2009	2,861(19.3)	1,670(11.3)	2,049(13.9)	6,579(44.5)	14,789(100)
2010	2,801(18.7)	1,741(11.6)	2,027(13.5)	6,569(43.8)	15,000(100)
2011	2,786(18.1)	1,783(11.6)	1,984(12.9)	6,553(42.6)	15,374(100)
2012	2,779(17.6)	1,842(11.7)	1,940(12.3)	6,562(41.6)	15,780(100)
2013	2,723(17.1)	1,811(11.4)	1,822(11.4)	6,355(39.9)	15,942(100)
2014	2,737(16.7)	1,845(11.3)	1,786(10.9)	6,368(38.9)	16,390(100)
2015	2,776(16.7)	1,792(10.8)	1,788(10.8)	6,356(38.3)	16,607(100)
2016	2,822(16.8)	1,734(10.3)	1,825(10.8)	6,382(37.9)	16,849(100)
2017	2,828(16.6)	1,632(9.6)	1,892(11.1)	6,352(37.2)	17,059(100)
2018	2,815(16.5)	1,561(9.1)	1,909(11.2)	6,286(36.8)	17,082(100)
2019	2,880(16.6)	1,534(8.9)	1,886(10.9)	6,300(36.4)	17,299(100)
2020	2,687(15.8)	1,531(9.0)	1,745(10.3)	5,963(35.2)	16,961(100)
2021	2,767(16.1)	1,548(9.0)	1,673(9.8)	5,988(34.9)	17,150(100)
2022	2,884(16.3)	1,611(9.1)	1,610(9.1)	6,105(34.6)	17,641(100)
2023	2,817(15.7)	1,720(9.6)	1,561(8.7)	6,098(34.0)	17,943(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중소기업 서비스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15.7%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5%) 대비 2.8%p 낮았으며, 30~39세 비중은 18.3%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9%) 대비 3.4%p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3.8%p('03)에서 -2.8%p('23)로 1.0%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6.0%p('03)에서 3.4%p('23)로 2.6%p 악화되었다.

〈표 4-25〉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서비스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2003	27.8	24.0	△3.8p	22.9	28.9	6.0p
2004	26.9	23.3	△3.6p	22.8	28.5	5.7p
2005	26.1	22.2	△3.9p	22.5	28.2	5.7p
2006	25.6	21.2	△4.4p	22.1	27.8	5.7p
2007	25.2	20.7	△4.5p	21.6	26.8	5.2p
2008	24.8	20.0	△4.8p	21.1	26.3	5.2p
2009	24.4	19.3	△5.1p	20.6	25.2	4.6p
2010	23.8	18.7	△5.1p	20.1	25.1	5.0p
2011	23.3	18.1	△5.2p	19.7	24.5	4.8p
2012	22.8	17.6	△5.2p	19.3	24.0	4.7p
2013	22.3	17.1	△5.2p	18.8	22.8	4.0p
2014	22.0	16.7	△5.3p	18.3	22.2	3.9p
2015	21.7	16.7	△5.0p	17.8	21.6	3.8p
2016	21.5	16.8	△4.7p	17.4	21.1	3.7p
2017	21.1	16.6	△4.5p	17.1	20.7	3.6p
2018	20.7	16.5	△4.2p	16.7	20.3	3.6p
2019	20.4	16.6	△3.8p	16.3	19.8	3.5p
2020	19.9	15.8	△4.1p	15.9	19.3	3.4p
2021	19.5	16.1	△3.4p	15.5	18.8	3.3p
2022	18.9	16.3	△2.6p	15.2	18.2	3.0p
2023	18.5	15.7	△2.8p	14.9	18.3	3.4p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에서 인구 비중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4) 기타 업종

중소기업 기타 업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2023년 기준 530천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기타 업종 취업자(3,762천 명)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26.0%('03)에서 14.1%('23)로 11.9%p 감소했다. 중소기업 기타 업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8.1%('03)에서 4.8%('23)로 3.3%p, 30~34세 비중은 8.0%('03)에서 4.1%('23)로 3.9%p, 35~39세 비중은 9.9%('03)에서 5.2%('23)로 4.7%p 감소했다.

〈표 4-26〉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변화 추이(기타 업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39세 이하	전체
2003	311(8.1)	305(8.0)	380(9.9)	995(26.0)	3,830(100)
2004	287(7.5)	308(8.1)	374(9.8)	969(25.4)	3,814(100)
2005	275(7.4)	288(7.8)	370(10.0)	933(25.1)	3,715(100)
2006	263(7.1)	279(7.5)	360(9.7)	902(24.4)	3,700(100)
2007	224(6.1)	269(7.3)	362(9.8)	855(23.2)	3,682(100)
2008	210(5.8)	259(7.1)	345(9.5)	814(22.4)	3,631(100)
2009	199(5.7)	227(6.5)	330(9.5)	757(21.7)	3,494(100)
2010	186(5.4)	199(5.8)	322(9.3)	707(20.5)	3,447(100)
2011	165(4.8)	192(5.6)	294(8.5)	650(18.9)	3,433(100)
2012	174(5.1)	192(5.6)	261(7.6)	627(18.3)	3,426(100)
2013	161(4.7)	166(4.9)	257(7.6)	584(17.2)	3,396(100)
2014	162(4.8)	171(5.0)	226(6.7)	559(16.5)	3,392(100)
2015	145(4.4)	174(5.2)	210(6.3)	529(15.9)	3,321(100)
2016	141(4.3)	156(4.8)	219(6.7)	516(15.8)	3,273(100)
2017	152(4.5)	159(4.7)	235(6.9)	545(16.1)	3,398(100)
2018	174(4.9)	158(4.5)	243(6.9)	575(16.4)	3,509(100)
2019	199(5.6)	155(4.4)	223(6.3)	577(16.2)	3,551(100)
2020	202(5.6)	165(4.6)	224(6.2)	591(16.4)	3,615(100)
2021	193(5.2)	173(4.7)	203(5.5)	569(15.3)	3,707(100)
2022	188(5.0)	176(4.6)	192(5.1)	556(14.7)	3,780(100)
2023	182(4.8)	155(4.1)	194(5.2)	530(14.1)	3,762(100)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수치는 반올림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중소기업 기타 업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4.8%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8.5%) 대비 13.7%p 낮았으며, 30~39세 비중은 9.3%로 동 연령대 인구 비중(14.9%) 대비 5.6%p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타 업종 취업자 비중과 인구 비중 차이는 29세 이하는 -19.7%p('03)에서 -13.7%p('23)로 6.0%p 개선되었으며, 30~39세는 -5.0%p('03)에서 -5.6%p('23)로 0.6%p 악화되었다.

〈표 4-27〉 청년 인구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 차이(중소기업 기타 업종, 2003~2023)

(단위 : 천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인구 비중(A)	취업자 비중(B)	차이(B-A)
2003	27.8	8.1	△19.7p	22.9	17.9	△5.0p
2004	26.9	7.5	△19.4p	22.8	17.9	△4.9p
2005	26.1	7.4	△18.7p	22.5	17.8	△4.7p
2006	25.6	7.1	△18.5p	22.1	17.2	△4.9p
2007	25.2	6.1	△19.1p	21.6	17.1	△4.5p
2008	24.8	5.8	△19.0p	21.1	16.6	△4.5p
2009	24.4	5.7	△18.7p	20.6	16.0	△4.6p
2010	23.8	5.4	△18.4p	20.1	15.1	△5.0p
2011	23.3	4.8	△18.5p	19.7	14.1	△5.6p
2012	22.8	5.1	△17.7p	19.3	13.2	△6.1p
2013	22.3	4.7	△17.6p	18.8	12.5	△6.3p
2014	22.0	4.8	△17.2p	18.3	11.7	△6.6p
2015	21.7	4.4	△17.3p	17.8	11.5	△6.3p
2016	21.5	4.3	△17.2p	17.4	11.5	△5.9p
2017	21.1	4.5	△16.6p	17.1	11.6	△5.5p
2018	20.7	4.9	△15.8p	16.7	11.4	△5.3p
2019	20.4	5.6	△14.8p	16.3	10.7	△5.6p
2020	19.9	5.6	△14.3p	15.9	10.8	△5.1p
2021	19.5	5.2	△14.3p	15.5	10.2	△5.3p
2022	18.9	5.0	△13.9p	15.2	9.7	△5.5p
2023	18.5	4.8	△13.7p	14.9	9.3	△5.6p

*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하며, 연령대별로 취업자 비중에서 인구 비중을 차감한 수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5 시사점

성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의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1.8%로 대기업 여성(57.8%) 대비 26.0%p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남성과 여성 취업자 비중은 동 연령대 청년 인구 비중 대비 낮았으며, 30~39세는 동 연령대 청년 인구 비중 대비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15.7%)은 남성 취업자(11.7%) 대비 높지만, 30~39세 비중(16.1%)은 남성 취업자(18.4%) 대비 낮게 나타났다. 첫 일자리 구직 시에는 여성의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30대에는 자녀 출산과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2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2023년 기준 31.1%에 불과하며, 배우자가 있는 39세 이하 상용근로자의 소기업 비중(43.6%) 대비 12.5%p 낮은 수준이다(고용노동부, 2024; 통계청, 각연도a; 노민선, 2024a).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및 방식, 휴가 및 휴직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 정도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학원졸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24.8%로 대기업(31.9%) 대비 7.1%p 낮으며, 최근 20년간 대학원졸 취업자 중 청년 비중 감소폭은 중소기업(24.8%p)이 대기업(13.6%p) 대비 11.2%p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청년 비중은 대졸 취업자(42.0%)가 대학원졸 취업자(24.8%) 대비 17.2%p 높으며, 최근 20년간 대졸 취업자와 대학원졸 취업자 간의 청년 비중 차이는 15.1%p('03)에서 17.2%p('23)로 2.1%p 확대됐다.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고졸 및 전문대졸 취업자의 후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제조업 취업자의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3.5%로 대기업 제조업(46.2%) 대비 12.7%p 낮으며, 최근 20년간 청년 취업자 감소폭은 18.6%p로 대기업 제조업(18.1%p) 대비 0.5%p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취업자 비중은 제조업(11.7%)이 서비스업(15.7%) 대비 4.0%p 낮게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들이 제조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중소제조업의 작업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율연구 24-01]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제 5 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300인 미만 사업체'로, 청년을 '39세 이하'로 정의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매출액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업종의 중소기업 구분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 분야 주요 국가승인통계들은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청년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 따라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9세 이하로 하위 5세 단위로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30.9%로 300인 이상 대기업(46.6%) 대비 15.7%p 낮으며, 최근 20년간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폭은 16.8%p로 대기업(16.2%p) 대비 크게 나타났다. 3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중(33.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30.9%)은 2.5%p 낮고, 대기업(46.6%)은 13.2%p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유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청년 구직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19)에서 3.6%('23)로 감소했다(통계청, 각연도b).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 및 복지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7.8%로 비임금근로자(15.2%) 대비 22.6%p 높으며, 3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중(33.4%)과 비교했을 때 4.4%p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29세 이하 비중은 2023년 기준 15.2%로 임시근로자(23.7%) 대비 8.5%p 낮으며, 최근 20년간 13.5%p 감소했다. 2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중(18.5%)과 비교했을 때, 상용근로자

(15.2%)는 3.3%p 낮고, 임시근로자(23.7%)는 5.2%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들이 구하는 첫 번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빈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구직자와 관측은 중소기업 간의 구인-구직 연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청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에서 자영업(창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19)에서 15.8%(23)로 증가했지만(통계청, 각연도b), 30~39세 기술창업기업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했다(중소벤처기업부, 각연도). 일정 수준 이상 혁신 역량을 보유한 30대 중심의 청년 기술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1.8%로 대기업 여성(57.8%) 대비 26.0%p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여성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15.7%)은 남성 취업자(11.7%) 대비 높지만, 30~39세 비중(16.1%)은 남성 취업자(18.4%) 대비 낮게 나타났다. 첫 일자리 구직 시에는 여성의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30대에는 자녀 출산과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및 방식, 휴가 및 휴직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42.0%로 대기업 대졸(54.9%) 대비 12.9%p 낮으며, 최근 20년간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폭은 22.7%p로 대기업 대졸(16.4%p) 대비 6.3%p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청년 비중은 대졸 취업자(42.0%)가 대학원졸 취업자(24.8%) 대비 17.2%p 높으며, 최근 20년간 대졸 취업자와 대학원졸 취업자 간의 청년 비중 차이는 15.1%p(03)에서 17.2%p(23)로 2.1%p 확대됐다.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고졸 및 전문대졸 취업자의 후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수출 등의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소제조업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2023년 기준 33.5%로 대기업 제조업(46.2%) 대비 12.7%p 낮으며, 중소기업의 29세 이하 취업자 비중은 제조업(11.7%)이 서비스업(15.7%) 대비 4.0%p 낮게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들이 제조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중소제조업의 작업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개선방안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 요약 내용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 현실화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591만 원)은 중소기업(286만 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통계청, 2024c),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노민선, 2023a). 청년 구직자의 22.2%는 임금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연봉 수준을 꼽는다(중소기업중앙회, 2022).

첫째,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년 재직자의 급여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년 평균 초과임금증가분에 대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율(20%)을 상향 조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29의4), 청년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율(15%)을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공제율(25%)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법§19). 청년 재직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시 근로소득증대세제와의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법§127).

둘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중견기업의 상생협력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10%)을 상향 조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 §8의3),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법§132).

셋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 의료,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2023년도에 신설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립한도, 업종, 연소득 등 관련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welfare.korcham.net)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청년 구직자와 관찮은 중소기업 간의 연계 강화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빈일자리는 14.8만 명(19)에서 18.6만 명(23)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상용근로자 빈일자리의 96.9%를 차지한다(고용노동부, 각연도a). 상용근로자의 인력 미충원율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18.7%)가 300인 이상 사업체(8.2%) 대비 10.5%p 높게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3).

첫째, 중소기업 청년 인력지원 플랫폼 간의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워크넷·온통청년(고용노동부), 참 관찮은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이공계인력증개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지원 병역일터(병무청) 등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력지원 플랫폼 간에 정보 연계를 확대하거나 플랫폼을 통합·운영하고, 부처 간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인력의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인증·지정·선정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부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강소기업'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년 기술창업 촉진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에서 창업 등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통계청, 각연도b), 20~30대 청년층에서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했다(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각연도). 하지만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중이 함께 증가했다(국세청, 각연도; 중소기업부, 각연도; 노민선, 2024b).

첫째, 혁신 역량을 보유한 청년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도록 역량 있는 전문가를 통한 밀착 멘토링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창업자의 사업전환 및 재창업,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전환 또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과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취업 연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 청년 여성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유연근무제 활용도는 30~39세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9인 이하 소기업에서 낮게 나타나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2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 비중(31.1%)은 배우자가 있는 39세 이하 상용근로자의 소기업 비중(43.6%) 대비 12.5%p 낮게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4; 통계청, 각연도a, 각연도c; 노민선, 2024a).

첫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를 완화해야 한다. 29인 이하 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법),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의 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인증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여가친화인증제(문화체육관광부), 가족친화기업인증(여성가족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증 취득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노민선, 2023b).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는 가점 부여나 우선 참여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식개선 사업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교육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직업계고 졸업생 중 진학자 비중은 47.0%로 취업자 비중(27.3%) 대비 19.7%p 높으며 2020년 대비 4.5%p 증가했다(한국교육개발원·통계청, 각연도).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대학원졸 취업자(24.8%)가 대졸 취업자(42.0%) 대비 17.2%p 낮은 수준이다(p.56).

첫째, 직업계고 재학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고졸 및 전문대졸 취업자에 대한 후학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직업계고 수준 저하 방지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입학 전 진로체험 프로그램부터

전공심화 및 맞춤형 현장 실무 교육까지 학년별 진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교-중소기업-대학 연계를 통해 개인의 성장경로에 따른 맞춤형 후학습 트랙과 학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우수 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대학-박사과정생 간 3자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해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 및 취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석·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신진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현행 기준연봉의 50%에서 상향 조정하고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중소기업의 작업 및 근로환경 개선

청년 세대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는데 안정감을 주는 요인으로 출퇴근 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업무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대학내일, 2024).

첫째, 교통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비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단지별로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교통비, 유류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숙사비 또는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작업환경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직접 투자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연구소, 생산 현장 등 작업 공간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업환경 개선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미디어에 이를 확산·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산업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일자리 전환 시 훈련비와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AI 자율 제조 등 디지털 전환 시 파생되는 신규 인력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각연도a), 「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노동부(각연도b),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2023), 「2023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 고용노동부(202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통계」.
- 국세청(각연도), 「국세통계연보」.
- 노민선(2023a),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근로복지포럼 발표자료(2023.10.19.).
- 노민선(2023b), 「소기업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 및 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노민선(2024a),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발표자료(2024.7.12.).
- 노민선(2024b), 「소상공인 현 상황 진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국민통합위원회 토론회 발표자료(2024.4.11.).
- 대학내일(2024), 「일에 대한 인식변화」, 청년고용포럼 발표자료(2024.6.20.).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4),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중소기업중앙회(2022),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 중소벤처기업부(각연도), 「창업기업동향」.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각연도), 「중소기업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각연도), 「소상공인실태조사」.
- 통계청(각연도a),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각연도b), 「사회조사 결과」.
- 통계청(각연도c),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2023a), 「장래인구추계(2022~2072)」.

통계청(2023b),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2024a),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2024b), 「통계설명자료서비스」.

통계청(2024c),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cta?statsConfmNo=101004&kosisYn=Y>)(검색일:2024.5.25.)

한국교육개발원·통계청(각연도),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4),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현황」

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